



바보 영문법

cafe.daum.net/babo-edu

바보들의 배움터

바보들의 영문법

(핵심 기초영문법)

by 정론직필



도서출판 바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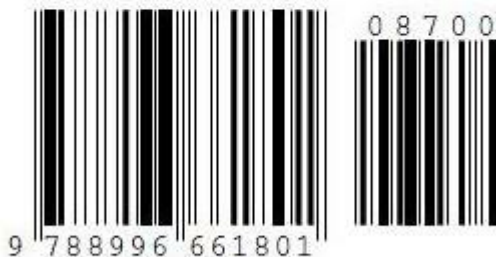
저자: 정론직필

아래와 같은 블로그와 카페들을 운영중임.

<http://cafe.daum.net/sisa-1> (시사평론)

<http://cafe.daum.net/babo-edu> (바영법)

값 6000 원



ISBN 978-89-96618-0-1

Copyright by 정론직필 All rights reserved

목차

들어가는 말	4
1. 영어문장의 구조	10
2. 동사의 중요성	16
3. 영문구조의 종류(5형식)	23
4. 5형식 문장의 형성과정	32
5.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49
6. 수식어와 전치사구	57
7. 수식어와 전치사구(보충)	74
8. 어순과 품사의 중요성	87
9. 구와 절	103
10. 완료형, 진행형, 수동태 - 문법적 약속	112
11. 동사류(부정사, 동명사, [현재, 과거]분사)	126
12. 관계사(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149
13. 잡동사니(Miscellaneous)	172
핵심 기초영문법 강의를 마치며	210

바보들의 영문법

들어가는 말

-바보들의 영문법 강의 대상:

적어도 중2 이상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 이유는 그 보다 적은 나이의 어린 학생들은 영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중1 및 초등생, 유치원생 등은 영문법을 배우지 않고 영어를 배우더라도 인간의 두뇌는 저절로 알아서 영문법을 습득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남의 나라 말인 외국어를 오로지 두뇌의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성인들, 즉 적어도 중2 이상의 사람들만을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혹시라도 중2 이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보들의 영문법 강의 내용:

영문원서를 독파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 기초영문법을 담고자 합니다. 영문원서를 독파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2학년 때 배웠음직한 영문법적 내용들인 3인칭 단수 현재 동사에는 -s를 붙인다던가, 복수명사를 만들 때에는 대개 단수명사에 -s를 붙인다던가 또는 관사에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다던가 등의 내용들은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내용들은 인터넷 상에 무수히 많은 한글 및 영문으로 된 영문법 사이트를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이 책에서는 기존 영문법 책들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영문법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영문법적 내용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선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문법적 지식들이 실제 영문독해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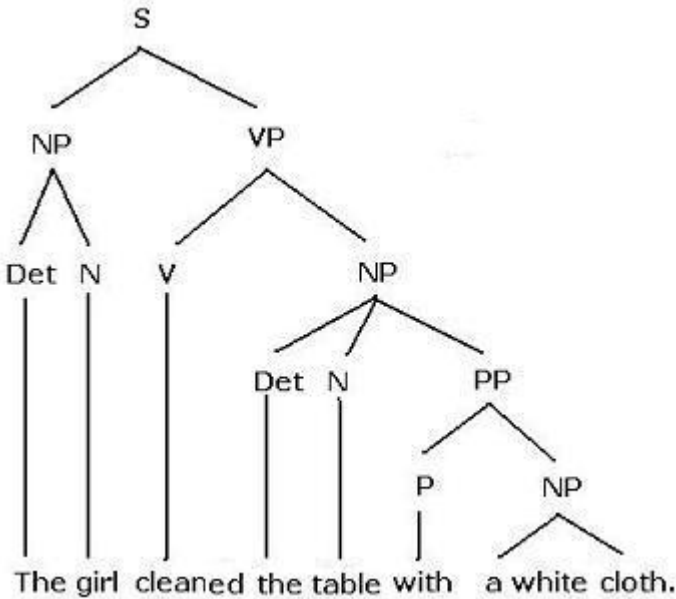
이 책에서 다루는 영문법적 지식들은 철저히 “논리적 추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논리적 추론을 치밀하게 해야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치밀한 논리전개를 싫어하던가 또는 영어란 그저 감성적인 무엇으로 생각하여 간단히 암기나 문법적 지식없이 그저 정서적 방법으로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중의 어떤 영어강사들이나 책들은 아마도 영문법적 지식없이도 한국인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책은 그런 주장을 철저히 부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이미 비활성화 되어버린 한국인 성인들이 외국어인 영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철저히 뇌의 논리적 기능을 활용하여 배우는 수 밖에 없다는 전제조건하에 이 책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영문법적 논리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오늘날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이 영어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는 도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핵심적 기초영문법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위 도표의 의미를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위와같이 도표를 그려서 설명하지 않고 그저 말로써 위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매우 쉽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막상 실제 영문원서를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을 사실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다른 이유는 단지 영문법만 잘 안다고 해서 영어문장들을 술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독해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문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실전훈련 과정이 좀더 필요한데,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아래 카페나 나중에 이 책의 부록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babo-edu>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

그리고 영어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문법 외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독해기술이 더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도 머지않아 따로 출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독해기술에 대한 책이 출간되면 그 사실을 위 카페에 공지할 것입니다.

-바보들의 영문법의 특징:

1. 기존 영문법 서적들에서 설명하는 자질구레한 내용은 이 책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대신 어려운 영문원서를 술술 독파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기초영문법들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2. 여기서 소개되는 중요 영문법 내용들이 도대체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할 영문법 내용들의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즉, 그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써 여러분들은 그 문법적 내용을 실제 영어문장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3. 영어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영문법적 논리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써 영어문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그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 문장이 의미하는 논리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와도 그것들의 의미를 거의 정확히 유추해 낼 수 있는 실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작업은 철저히 영문법적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영문법을 배우면 혼자서도 모든 영문들을 그런 방식으로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연습문제들과 예제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는 아래 카페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책의 부록으로 곧 출판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babo-edu>

(바보들의 영문법 카페)

1. 영어문장의 구조

언어란 어느 나라 말이나 모두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결국 철저히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어문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영어라는 말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어문장의 그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뼈대 등 여러 인체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사람은 단지 별거벗은 알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옷이나 구두 및 귀걸이 등 등 장식품들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문장의 구조도 몇개의 “뼈대”와 “장식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도대체 몇개의 영어문장들이 존재할까요?

아마도 무수히 많아서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영어문장들의 구조를 분석해 본다면, 각 영어 문장들은 도대체 몇개의 뼈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영어문장들은 아마도 무수히 많은 주요 “뼈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많
아도 고작해서 4개의 뼈대가 최대치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문장의 “뼈대”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주 흔히 배운 내용들인데, 그것이 바로 “주어(S), 동사(V), 목적어(O), 보어(C)”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그 4개가 이 세상의 모든 영어문장들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영어문장은 단지 동사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어문장의 뼈대는 하나 뿐인 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문장은 주어+동사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영어문장은 2개의 뼈대를 가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갯수의 뼈대를 가진 영어문장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미 익히 알고 있을지도 모를 영문구조인데, 그것은 바로 주어+동사+목적어+보어로 구성된 소위 제5형식 문장입니다. 그것은 결국 4개의 뼈대로 되어 있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영어를 잘하려면 우선 어떤 영어문장이 도대체 몇 개의 뼈대로 된 문장인지, 즉, 그 영어문장의 알맹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일입니다.

어느 영어문장의 전체적인 뼈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영어문장을 이해하려고 덤벼든다면 그건 실로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다.

영어문장의 중요한 알맹이인 “뼈대”가 고작해서 최대 4개 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문장을 아름답거나 그럴듯하게 장식해주는 소위 “장식품” 즉, “수식어”들은 도대체 몇 종류나 될까요?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영어문장들이 존재하니, 영어문장의 “수식어”들도 거의 그만큼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흔히 그렇게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영어문장의 “수식어” 종류는 고작해서 2개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형용사”와 “부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위에서 말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4개의 뼈대와 형용사, 부사라는 2개의 수식어가 이 세상 모든 영어문장의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요?

고작해서 4개의 알맹이인 “뼈대”와 고작해서 두 종류의 수식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소위 영어문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니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어렵다며 해만다면 그건 영어를 배우는 방법에 있어서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점을 나는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영어문장의 “뼈대”를 “**문장성분**”(Elements)이라고 하고, 장식품들은 “**수식어**”(Modifier)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영어문장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지요.

In the middle of the jungle was a river that all the animals went to every day.

(그 정글의 가운데에는, 모든 동물들이 날마다 갔었던 강이 있었다.)

여러분들,

위 영어문장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middle=가운데, jungle=정글, river=강, all=모든, animals=동물들,
went=go (가다)의 과거형, every day=매일

위 단어들은 모두 중1 수준의 영어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위 문장의 모든 단어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위 영어 문장의 구조도 정확히 알아야만 할 것인데 과연 그럴습니까?

위 영어문장의 “빠대”는 무엇이며, 또 몇개인가요? 즉, 몇형식 문장인가
요?

위 영어문장의 “빠대”는 오로지 동사 **was**와 주어 **river** 두 개 뿐입니
다. 즉, **1**형식 문장입니다.

즉, 빠대만 이야기한다면 “강이 있었다”(a river was.)인데 위 문장에
서는 그것이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 도치되어 있군요.

주어, 동사가 그렇게 도치되어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이상한 장식품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문장에 줄줄이 붙어 있는 나머지 영어단어들은 뭔가요?

네, 그것들은 당연히 장식품들인 **수식어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식어 또는 수식어구에는 두 가지 종류 밖에 없다고 이미 내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즉, 위 장식품들은 형용사(구) 이거나 또는 부사(구)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어문장의 장식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직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나머지 수식어구들의 종류 등을 따진다고 하는 것은 독자 여러분의 머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아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지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와같이 좀 길어 보이는 영어문장이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진짜 알맹이 뼈대는 오로지 간단한 두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영어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동사의 중요성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방법

지금 40~50대 이상인 분들은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영어문장의 “대장”(Head)는 “주어”(Subject)라고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즉, 요즘 신세대 학생들은 영어학 최신이론에 따라 영어문장의 “대장”(Head)는 “동사”(Verb)라고 배우고 있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어떤 영어문장이 있다면, 그 영어문장 전체를 총지휘하고 지배하는 단어는 바로 “동사”라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영문법을 배우신 분들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read ~을 읽다

중1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위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일 **Read!**(읽어라!) 라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그 한 단어로써 의미있는 문장이 되지요. 즉, 소위 말하는 명령문입니다. 그것은 “동사” 라는 단 하나의 뼈대만 가진 영어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좀더 복잡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영어문장구조도 아울러 복잡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I read a book.(나는 책을 읽는다. 또는, 나는 책을 읽었다)

read 읽다(현재형), 읽었다(과거형): 이 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동일한 형태의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위 문장의 해석이 그와같이 현재형이나 과거형 두 가지 해석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논의에서는 그런 따위는 전혀 중요치 않고...중요한 것은, 만일 위 문장에서 동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래와 같이 될 것입니다.

I a book.

위 두 단어들은 어떤 의미로 연결될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두 단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건
 완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즉, 먼저 **read** 라는 동사가 있고 난 후에야...주어, 목적어도 필요해지
 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시작해보면...

read 아무개가 ~을 읽다.

사실 **read**라는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저 단순히 "읽다"라
 고 표현해서는 안되고, 원래는 "누가(=주어) 무엇을(=목적어) 읽다"라
 고 표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read** 라는 동사 자체가 이미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정확히 잘 기억해 두세요! 매우 중요합니
 다.)

그래서 **read**라는 "동사의 성질"상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므로 이제 주
 어와 목적어를 채워넣으면 아래 문장이 됩니다.

I read a book.(나는 책을 읽는다. 또는, 나는 책을 읽었다.)

위 문장에서 I(나)는 "**read** 라는 동사의 주어"라고 부르며, a book(책)
 은 "**read** 라는 동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즉, “어느 동사의 주어”란 그 동사의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느 동사의 목적어”란 그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주어, 목적어 등이 동사와 상관없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으로 생각해 왔겠지만, 그러나 특정의 동사를 떠나서는 주어든, 목적어든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느 특정의 동사가 미리 존재해야만, 그 동사에 맞추어 주어도 있을 수 있고, 목적어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려나요?

어쨌든, 위 문장은 주어+동사+목적어(=3형식 문장)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아무런 장식품 없이 오직 3개의 뼈대로만 구성된 문장이지요.

자, 그럼 “**동사의 성질**”이 어느 특정 영어문장의 뼈대를 결정한다는 것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지요.

am은 (~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be동사**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만일 am이라는 be 동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I am. (나는 ~이다) 또는

I am a book.(나는 책이다.)

위 첫번째 문장은 완결되어지지 못한 문장입니다. 왜냐면 “나는~이다”에서 “~”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바로 “~”부분을 더 보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충해주는 부분을 “**보어**”(C)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a boy**라는 단어를 더 보충해주면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I am a boy. (나는 소년이다)=2형식 문장=S+V+C

위 얘기는 결국 2형식 문장을 만드는 “**be 동사**”의 성질이 반드시 “**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느 영어문장에서 **2형식 문장의 be 동사**가 있다면, 그 문장에는 반드시 그 **be동사**를 보충해주어 문장을 완결시킬 “**보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번째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지요.

I am a book.(나는 책이다.)

네. 역시 문장이 완결되어 있네요.

즉, 문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말의 논리상 내가 책이라는 것이 약간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화책 등에서 책이 자신을 책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이제 동사가 어느 영어문장의 뼈대를 사실상 만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셨나요?

그 말은 결국 어느 영어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선 그 문장의 동사의 성질을 살펴봐야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 동사가 1형식 동사인지 아니면, 3형식 동사인지 또는 5형식 동사인지를 말입니다.

참고: be 동사

여러분들, **be** 동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be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 이고 과거형은 was, were 죠.

사람들은 대개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be** 동사의 완료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have been, has been** 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조동사”라는 may, could 등등과 결합한 be동사의 완료형은 어떤 꼴일까요?

네, 바로 **might have been, could have been** 들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들도 사실은 be 동사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Be 동사의 의미: 딱 두 가지 의미 뿐

1. 존재한다, ~이 있다 (1형식 동사로 쓰일 때)
2. ~이다. (2형식 동사로 쓰일 때, 즉, 보어가 반드시 필요)

1형식 예: There's that book you were looking for.

(너가 찾고 있었던 책이 저기 있었다)

이 문장은 도치문장으로서 was(동사) + that book(주어)인 1형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there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사”라고 하며, 다만 형식적 주어의 위치에 가 있을 뿐입니다.

3. 영문구조의 종류(5형식)

여러분들 학교 다닐때 영어의 단문문장(Simple Sentence)의 5형식이 라고 해서 아마 귀가 아플 정도로 자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겹도록 암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어에서 도 대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영어를 잘하려면 바로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부분을 생략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문장의 5형식하면 한국의 학생들은 대개 그 형식만 암기하고 마는데, 그러나 그런 따위 암기는 거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는 단지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어문장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문장이 아무리 길든 짧은 관계없이 무조건 아래 5개의 형태 중 어느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어떤 영어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면 우선 그 뼈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몇형식 문장인지 부터 알아 보아야만 합니다.

(S=Subject=주어, V=Verb=동사, O=Object=목적어, C=Complement=보어, DO=직접 목적어, IO=간접 목적어)

- 1형식: S + V** (완전 자동사)
- 2형식: S + V + C** (불완전 자동사)
- 3형식: S + V + O** (완전 타동사)
- 4형식: S + V + IO + DO** (완전 타동사=수여동사)
- 5형식: S + V + O + C** (불완전 타동사)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와 같은 영어문장의 뼈대구조는 “동사”의 성질이 1형식 문장을 갖도록 만드는지, 아니면 3형식 문장을 갖도록 만드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문장구조의 뼈대는 근본적으로 그 문장의 “동사”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5가지의 단문문장 구조형식들에 모두 동사들이 들어 있지만
그러나 그 각각의 성질이 각각의 문장형식을 만들도록 서로 다른 동사들
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법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무식하게 설명하면 정론직필의 영문법 강의 치고는
너무 한심한 수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주어”와 “목적어”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지요.

주어와 목적어

여러분들, 앞 강의에서 “주어”니 “목적어”니 하는 것들은 결코 단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동사가 먼저 존재한 다음에 비로
소 “**그 동사의 주어**” 또는 “**그 동사의 목적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즉, 만일 어느 특정의 동사가 미리 주어지지 않았다면, “주어”니 “목적어”니 하는 말들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어느 특정의 동사 없이는 주어니, 목적어니 하는 것들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어느 타동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쉬운 예로 **read**라는 동사를 예로 들기로 하죠.

앞 강의에서 **read**라는 동사의 의미는 “아무개가 ~을 읽다”라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컨데 그 아무개가 만일 나라면, 그리고 내가 만일 책을 읽는다면,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I read a book.

주어

위 문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read**라는 동작을 수행하는 **I(나)**가 바로 소위 말하는 “주어”라는 말입니다.

즉, 읽는 동작을 하는 것이 바로 “나”(I)이지요.

즉, “주어”란 어느 특정 동사가 나타내는 그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어란 결코 그 문장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적어

그렇다면 위 문장에서 **read**를 당하는 대상물(객체=목적물)은 무엇인가요?

위 문장에서는 “책”이 바로 읽힘을 당하는 대상물이지요. 그것이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느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대상물이 바로 **목적어**입니다.(여기서 “목적어”란 왜색 표현이 얼마나 이상야릇한 표현인지를 우리 한국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들은 한국어로는 주로 “~을”이라고 표현되지요. 위 문장에서는 “책을”이라고 표현되네요.

타동사

타동사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즉, 어느 특정 동사가 “~을 어찌하다”라고 우리말로 표현된다면, 그 동사는 거의 대부분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타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have(~을 가지다)**는 역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군요

그러나 동사의 동작을 당하는 대상물이 필요없어서 “~을 어찌하다”라는 표현이 필요 없는 동사들은 결국 “자동사”가 되겠네요. 예컨데, go(가다) 또는 am(~이다) 등등은 모두 자동사가 되겠군요.(“~을”이 필요 없으므로!)

자동사

타동사란 동사의 동작이 미칠 어떤 대상물(=목적어)이 필요한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사란 그런 대상물이 필요없는 동사들을 말하겠군요.

저 위에 든 문장형식 공식에서 살펴보면, 결국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들이 목적어가 없으니 바로 “**자동사**”들이고, 나머지 3, 4, 5형식 문장들은 모두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 3,4,5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은 모두 “**타동사**”들이겠군요.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역시 문법적인 설명은 매우 간단하죠.

원가 보충해주어야 할 말이 필요 없이 완벽하면 “**완전동사**”이고, 원가 부족해서 더 보충해 주어야 할 말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불완전동사**”죠. 그게 무슨 도깨비같은 소리인가?

예컨데, **I am ~**. 이라는 문장이 있고, 동사 **am**이 만일 “~이다”라는 의미라면 이 문장의 의미는 결국 “나는 ~이다”가 되는 셈이지요.

여러분, 그 문장의 의미가 완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나요?

뭔가 부족하지요?

예컨데, **a boy** 라든가 뭐든가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컨데 **a boy**를 더 보충해서 그 문장을 완성해 보면, “**I am a boy.**”가 되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소년이다”라는 완결된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때 보충해주는 말인 **a boy**를 바로 “보어(보충어=C)”라고 합니다.

결국 “**불완전동사**”란 반드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저 위 문장형식들 중에서 “보어”가 필요한 문장형식을 찾아보면 2형식과 5형식 문장의 동사들이 결국 “보어”가 필요하니, 그 동사들이 “**불완전 동사**”들이고, 나머지 **1, 3, 4**형식의 동사들은 모두 “완전 동사”들이 되는 셈이군요.

그런데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로도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종류들에는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컨대, 1형식 문장에서처럼, 보어가 필요 없어서 완전 동사이면서, 목적어도 필요 없다면 그것은 "완전 자동사"가 되겠네요. 나머지도 모두 그런 방식으로 따져본다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따져가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위 문장의 5형식 예제 문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S=Subject=주어, V=Verb=동사, O=Object=목적어,
C=Complement=보어, DO=직접 목적어, IO=간접 목적어)

- | | |
|-----------------------------------|------------------|
| 1형식: S + V | (완전 자동사) |
| 2형식: S + V + C | (불완전 자동사) |
| 3형식: S + V + O | (완전 타동사) |
| 4형식: S + V + IO + DO | (완전 타동사=수여동사) |
| 5형식: S + V + O + C | (불완전 타동사) |
|
 | |
| 1형식 문장: I go. | (나는 간다) |
| 2형식 문장: I am happy. | (나는 행복하다) |
| 3형식 문장: I read a book. | (나는 책을 읽는다) |
| 4형식 문장: I give him a book. | (나는 그에게 책을 준다) |
| 5형식 문장: I make him happy. |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든다) |

“보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형식은 2형식과 5형식인데, 위 예문들에서는 “보어”들이 모두 **happy**라는 형용사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2형식 문장의 보어를 특히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 5형식 문장의 보어를 특히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리어져야만 하는지는 나중에 기회있으면 그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위 예제 문장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주어**”와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명사**”들이라는 점이고, “**보어**”에 해당하는 말은 위에서는 **형용사**인 **happy**만 있지만, 그러나 **명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아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 **I am a boy.**=명사 보어)

4. 5형식 문장의 형성과정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문장의 전체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저 영어문장의 뼈대구조들만 살펴보고 있음을 명심해 주세요. 즉, 영어문장의 장식 품들인 “수식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아래 그림과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이 그저 뼈대구조들만 살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 그림의 뼈대구조에 장식품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수식어”들이 더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곧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영문의 뼈대구조들 중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5형식 문장의 구조를 좀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5형식 구조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른 문장형식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형식 문장구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5형식 구조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I am happy. (S + V + C) = 2형식 (나는 행복하다)

저 앞 강의에서 위 문장은 2형식 문장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래 3형식 문장을 또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You think. (너는 ~을 생각하고 있다.)

위 문장에서 동사 **think**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think (타동사, 자동사)

내가 영어라고 하는 것이 쉽다면 아주 쉬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솔직히 어렵다면 매우 어려운 점도 많은 것이 또한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의 어려운 점만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셈이지요.

think 라는 영어단어도 미리엄 웹스터라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품사가 있군요. **think**라는 단어는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며, 형용사 노릇을 할 때도 있는 단어라네요.

벌써부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서 벌써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니 조금더 참고 계속해서 그냥 읽어 주세요.

아무튼, 이번에는 **think**의 동사기능들에 대해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리엄 웹스터 사전: <http://www.merriam-webster.com/>

위 사전을 찾아보니, **think**라는 동사는 타동사 노릇을 하기도 하고, 자동사 노릇도 하는 동사로군요. 그런데 각각 매우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군요.

think라는 동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조리 암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글썄요, 나로서는 사실 사전에 나온 **think** 동사의 의미들을 거의 모릅니다.

그저 동사 **think**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을 **생각하다**” 정도의 의미만 나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까지 영어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하등 불편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사전에 나온 **think** 동사의 모든 의미들을 암기해야만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머리를 어지럽히고자 위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단지 **think**라는 동사가 자동사 노릇을 할 때도 있고, 타동사 노릇을 할 때도 있는데, 나는 5형식 문장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think**가 여기서 타동사로 쓰인다는 가정하에 설명하고자 해서 위와같이 장황하게 말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타동사 = “~을 어찌하다.”

우리말로 “~을”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목적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란 바로 그런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think가 타동사라면 “~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즉, think라는 동사는 적어도 3형식 문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I think + 목적어.

그 얘기는 I think. 라는 문장은 그 의미가 완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목적어를 더 보충해 주어야만 비로소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 think + (I am happy) 라는 두 문장을 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I am happy) 라는 문장 부분 전체를 하나의 “목적어” 부분으로 만들어, think 동사의 목적어로 만들면 되겠네요. 즉,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I think + () + I am happy.

그런데 위와 같이 만들어두다 보니 어딘지 모양이 좀 안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앞 문장과 뒷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품사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nd, or** 등등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서는 흔히 **that**가 이용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that**를 사용하여, 위 문장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문장과 같이 됩니다.

I think that I am happy.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위 문장의 구조가 보이나요?

위 문장은 몇형식 문장인가요?

that I am happy 부분 전체가 말하자면

think 동사의 "**목적어**" 부분입니다.

즉, 위 문장은 아래와 같은 3형식 문장입니다.

I(S) + think(V) + that I am happy(O).

여러분들 중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등 각각의 문장성분(뼈대)들은 오로지 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무엇으로 아마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일랑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위에서 보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든, 동사든, 목적어든, 보어든 각각의 문장뼈대들이 대단히 긴 문장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영어문장들에는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적어에 해당되는 위 문장 뒷부분을 자세히 살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즉, **that I am happy(O)**

목적어 부분 속에 다시 주어(I)와 동사(am) 및 보어(happy)가 들어있군요.

그 말은 목적어 부분에 완결된 문장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같이 주어+동사 등이 들어 있는 문장 부분을 문법에서는 "**절**"(Claus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목적어" 노릇을 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목적절"로 부르면 되겠네요.

(참고: 위와같은 경우의 that를 소위 “목적절을 이끄는 that”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 단어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어+동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완결된 문장이 아닌 경우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네, 그런 경우는 영문법에서 “구”(Phrase)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in the middle**(가운데에) 등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주어, 동사 따위가 없지요.

I think that I am happy.

위 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앞 부분에도 주어, 동사가 있고, 뒷부분에도 주어, 동사가 있군요.

즉, 앞부분도 “절”로 되어 있고, 뒷부분도 “절”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I think + that I am happy.

그럴 경우 우리는 여러개의 문장이 혼합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독립되어 있던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위와 같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복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절로 된 복문 형태의 문장구조가 아니라, 단 하나의 절로 된 문장, 즉, 단문형태의 문장구조로 위 복문 문장을 고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think that I am happy.



I think me to be happy.

접속사 **that** 란 무엇이라고 했나요?

두 문장을 단지 연결해주는 기능만 있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하나의 단문문장으로 만들고자 하므로, 그런 무의미한 접속사 **that**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군요. 그래서 삭제해 버리기로 하지요.

이제 접속사 **that** 가 없어졌으니, 뒷 문장 부분은 절대로 완전한 (주어, 동사)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I** 를 목적격인 **me**로 바꾸어주고, **am** 도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으니, 뭔가 다른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그 때 소위 말하는 “**to 부정사**”가 사용됩니다.

사실 “to 부정사”란 원래 동사가 제대로 된 **정식 본동사** **노릇**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동사적 의미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법적 기능입니다.

즉, 단문의 경우, 문장마다 정식 본동사는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하므로 문장내의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to 부정사**”나 “**동명사**” 또는 “**(현재, 과거) 분사**” 따위로 변형되어야만 합니다. 즉,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법적 영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I think me to be happy.

원래의 think 동사의 문장은 3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식 동사가 하나 뿐인 단문문장으로 바꾸어 놓고 보니, 이제 위 문장은 아래와 같은 5형식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I(S) think(V) me(O) [to be happy](C). : 5형식 문장

[to be happy](C) = 보어 부분

이제 be 동사의 특이기능 하나를 설명해야 할 때가 왔군요. be 동사에는 의미가 딱 두 가지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다”인 경우와 “있다, 존재하다”인 경우

그런데 **be** 동사의 의미가 “~이다”인 경우, 2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라고 했는데, 예컨대, **I am a boy.** 같은 경우의 **be** 동사 **am** 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I am a boy. (나 = 소년)

위 문장의 의미는 우리말로 “나는 소년이다”라는 의미인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나=소년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 문장에서의 **be** 동사인 **am**의 의미를 우리가 편리하게 그저 “~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냥 나=소년 이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영어문장에서는 반드시 문장의 완결성을 위하여 주어+동사의 형태가 되어야만 하므로 **be** 동사인 **am**은 그냥 문법적 동사로서 끼워넣은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의 **be** 동사를 소위 “**연결동사**”(linking verb)라고 합니다. 즉, 아무런 의미없이 그저 문법적 동사 노릇을 수행시키기 위해 문장에 그냥 끼워넣은 **be** 동사 등의 동사들을 말합니다.

참고:

위에서 나 = 소년 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주어(I) = 보어(a boy) 라는 말이 되는군요.

즉, 주어와 보어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형식 보어를 "주격보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도록 보어 자리에 명사인 a boy를 넣었지만, 그러나 "보어"는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I(S) am(V) happy(C).** 라는 2형식 문장이 되지요.

저 위에서 바로 위 문장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5형식 문장을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I think me to be happy.

결국 위 문장에서 (to be) 부분은 원래 be 동사 am 이 변해서 된 부정사 부분이죠. 그런데 am 은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는 "연결동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생략해 버려도 문장의 의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겠지요.

I think me happy. (5형식 문장)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I(S) think(V) me(O) happy(C).

이제야 5형식 단문문장이 되었군요.

그러면 위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맨 앞에서 했던 의미와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즉, 복문일 때의 의미나 단문일 때의 의미가 정확히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그 둘은 원래 서로 같은 것이니까요.

주의사항:

지금까지 위에서 5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아서 알겠지만, 5형식 문장의 "목적어"는 원래 2형식 문장의 "주어"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2형식 문장의 보어였던 happy가 이제는 5형식 문장의 "보어"가 되어 있음도 볼 수 있군요.

즉, 5형식 문장의 "보어"는 원래 2형식 문장의 "보어"였던 단어였다는 말입니다.

즉, 위 5형식 문장에서의 "보어"는 5형식 문장의 "주어"와 관련된 단어가 아니라, 원래의 2형식 문장의 "주어"였던 것이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된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형식 문장의 "보어"를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형식 문장의 "목적어"와 "보어"가 원래 2형식의 다른 문장에서 온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형식 문장의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즉, ~이, ~가) 해석하고, 5형식 문장의 "보어"를 마치 "술어부분(동사 부분)"처럼 해석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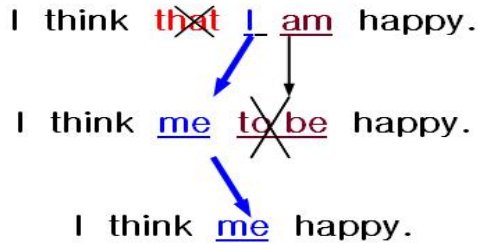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5형식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말로 매우 이상한 해석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보충]

3형식(I think +O) 문장과 2형식 문장(I am happy.)이 합해져서, 5형식 문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는데,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그와같이 골치아픈 장면을 보여준 것일까요? 공연히 여러분들에게 역시 영어란 어려운 것이란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니죠!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영어문장구조를 더 정확히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5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한 도표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위 도표에서 접속사 **that** 나 연결동사 **to be** 는 그냥 앞뒤 문장들이나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할 뿐,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도 가지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X 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 뒤에 문장의 주어 **I**를 목적격인 **me**로 바꾸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think**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 설명을 지금까지 장황하게 해온 이유는 바로 아래 내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1) 5형식 동사의 "목적어"는 원래 2형식 문장의 주어였다.

따라서 5형식의 목적어에 대한 해석도 마치 "주어"처럼 "~이, ~가" 라고 우리말로 해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5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원래 2형식 문장의 "동사 부분"(be 동사 + **보어**)이었다.

따라서 5형식 동사의 “목적어”와 “보어”를 해석할 때에는 언제나 서로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처럼 해석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You can't make him go if he doesn't want to.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가 가도록 (강제로) 만들 수 없다.)

위 문장의 앞 부분만 떼어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You can't make him go.

위 문장이 바로 5형식 문장입니다.

You(S) can't(조동사) make(V) him(O) go(C). : 5형식 문장

자, 이제 여러분들, 위 문장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보이시나요? 동사 make의 목적어인 him이 동사 make의 보어 go의 “주어”임이 눈에 보이시나요?

즉, 가는 것(go)은 결코 문장 전체의 주어인 You가 아니라, 그(him)라는 사실이 이해되는가요?

바로 그런 이유로 5형식 동사의 목적어인 him(그를)을 마치 “주어”처럼 “그가”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나중에 문장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는 경우, 문장 전체의 의미가 매우 헷갈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 문제를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삼아서 아래 5형식 문장이 처음에 어떤 두 개의 문장들로 만들어진 것인지 한번 각자 만들어 보세요.

You(S) can't(조동사) make(V) him(O) go(C). : 5형식 (A)

네, 앞 부분 문장은 원래

You(S) can't(조동사) make(V) + O. (3형식 문장) (1)

그리고 뒷 부분 문장은 원래

He goes. (1형식 문장) (2)

였겠군요. 뒷 부분 문장이 언제나 2형식 문장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군요. (참고: 사실 뒷부분 문장은 몇형식 문장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 (1), (2)번 문장을 합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You(S) can't(조동사) make(V) that he goes(O). : 3형식

뒷 부분이 접속사 **that**로 연결된 목적절이네요. 위 문장이 바로 저 위 5형식 단순 문장(A)으로 변환된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해볼 수 있겠지요?

5.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마 지겹도록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지겹도록 얘기를 들은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영문법적으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에 대해 주의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바로 이 앞에서 그와 같이 장황하고 지겹도록 5형식 문장에 대해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흥미를 잃고 영어가 싫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특히 5형식 문장에 대해서 그와같이 장황하게 얘기를 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제 그 일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왜냐면 사역동사, 지각동사들은 흔히 5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역동사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즉, 누군가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아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만 하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5형식 문장의 “목적어”가 되고, 그리고 그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그런 5형식 문장을 만들지요.

그런 사역동사에는 예컨데 **let, make, have, help, get** 등이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문장을 다시 예를 들어 본다면

You can't **make him go.** (5형식 문장)

여러분들, 위 문장이 5형식 문장임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시나요? (만일 그것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앞 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복습해야만 합니다.)

위 문장에서 **make** 라는 동사가 바로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make** 라는 동사가 사역동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붙어 있는 **make** 동사의 목적어 **him** 과 **make** 동사의 보어인 **go**의 기능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go (목적격 보어=C) 가다 : 원형부정사

가긴 가는데, 도대체 누가 간다는 말인가요?

You가 가는가요? 아니면 him이 가는가요?

him(목적어=O) 그를

사실 위 원문을 엄밀하게 직역한다면, “너는 그를 가도록 시킬 수가 없다”가 되죠. 그러나 나는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더욱 복잡해지면 이제 그런식 해석은 우리말로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문장의 경우, 목적격 him을 마치 보어인 go 주어처럼 “그가”라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가 가도록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석하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5형식 문장의 목적어를 마치 보어인 go의 주어처럼 해석하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위 문장의 목적어와 보어 부분은 원래 “**He goes.**”(그가 간다)라는 문장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문법적 용어 하나가 나왔는데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can't make (that) he goes. (3형식 문장)

여러분들, 위 문장은 3형식 문장임이 눈에 흰히 보이나요?
(그게 안보인다면, 그런 분은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야만 합니다.)

(that) he goes (동사 make의 목적절)

위 3형식 문장이 5형식 문장이 되는 과정을 저 위에서 설명했지만, 좀 생략을 했었는데, 여기서 할 수 없이 자세히 설명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You can't make (that) he goes.



You can't make him go.

저 앞 강의에서, 접속사 **that** 는 그저 앞뒤 문장 부분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담당하고 아무런 실제적 의미는 없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략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도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이제 뒷 부분 “(목적)절”을 없애고 단문으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목적절에서의 주어인 **he**는 이제 앞부분 본동사(=정식 동사)인 **make**의 목적어 노릇을 해야 하므로 주격인 **he** 에서 목적격인 **him** 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형식의 단문문장이 되려면, 앞에 이미 **make**라는 본동사가 있으므로, 뒷 부분의 **goes**가 그대로 남아서 자기도 본동사 노릇을 하겠다고 해서 안됩니다. 왜냐면 영문법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본동사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goes**를 본동사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바꾸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문법은 단 하나만의 본동사만을 허용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 문장안에 여러개의 동사들이 있을 경우, 그것들을 다른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문법적 용어들이 바로 “부정사”, “분사”, “동명사” 따위들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들을 시중의 문법책에서는 소위 “**준동사**”라고도 하는 모양이더군요.

어쨌든, 그것들은 여전히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는 있되,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본동사**가 결코 아니라는 특징이 있지요.

그리고 “부정사”에는 “**to**”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to**”가 붙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데, **to**가 없는 것을 특별히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정사”라는 의미는 동사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말이란 의미입니다. 예컨데 **am, are, is, were, has been** 등등은 모두 **be** 동사의 **변형들**입니다. 즉, 그것들의 뿌리(=원형)는 바로 **“be”**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be**동사류는 모두 부정사가 된다면 반드시 **be**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컨데 **goes**(3인칭 단수 현재 시제), **went**(과거 시제) 등의 원형, 즉 그 뿌리는 **“go”**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즉, 원형(뿌리) 동사를 의미하는 **“부정사”**란 사실 시제와 인칭이 제거된 동사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es** 도 위 3가지 “준동사”들 중에 하나로 변형을 시켜줘야 하는데, 흔히 부정사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원래는 **to go**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본동사 **make**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to go** 라는 **“to 부정사”**로 변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동사, 지각동사라는 것들은 특별히 목적격 보어의 위치에서 **to** 없는 **“원형부정사”**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문법적 규칙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원형인 **go** 로 변형된 것입니다. 왜 그런 문법적 규칙이 있는가 라고 나에게 물어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국,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규칙으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지각동사란 보고, 듣고, 맛보는 등의 지각을 표현하는 동사들인데, 예컨대 see(보다), hear(듣다) 등입니다. 지각동사도 문법적으로는 사역동사와 정확히 같습니다. 즉, 흔히 5형식 문장을 만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면 “원형부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I heard John **sing**. (5형식 문장)

(나는 존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heard=hear의 과거형)

이제 여러분들은 위 문장도 원래 어떤 두 문장이 합해져서 하나의 단문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지요?

참고:

비록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본동사라고 할지라도, 위 예문들에서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언제나 원형 부정사가 와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등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문장의 상황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어 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아래 문장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분사** 형태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충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아래 예문만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I heard John **singing**. (5형식 문장)

(나는 존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저 위에 소개한 문장(I heard John sing.)과 한국말 해석으로는 완전히 똑같이 되고 마는데, 그러나 그 실제적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어문장의 “**뼈대구조**”에 대해 설명해왔는데 이제 다음 강의 부터는 영어문장의 뼈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장식품들인 “**수식어**”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이제 다음 강의 부터는 영어문장의 뼈대구조에 살을 붙여가고 장식품을 붙여가는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문장들이 살이 찌고, 장신구도 달려 있어서 좀 통통해 보이고, 멋있게 치장된 문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6. 수식어와 전치사구

여러분들은 그동안 앞 강의들에서 영어문장의 앙상한 모습에 해당하는 “뼈대구조”들에 대해서만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어문장에 살이 붙고 뭔가 장식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훨씬 더 긴 문장과 화려해진 모습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해 지나요?

“수식어”(modifier)란 다른 단어나 구(phrase)를 꾸며주는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 문장에서의 **beautiful** 같은 단어들입니다.

A girl.  **A beautiful girl.**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지금까지 단지 **a girl** 이란 영어문장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beautiful**(아름다운)이란 단어가 두 단어 사이에 끼어 들어갔군요.

위 화살표의 왼쪽의 단어를 보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냥 하나의 어떤 소녀’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특징도 없고, 그 소녀에 대해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소녀입니다. 그냥 소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나이 어린 여자를 가리킬 뿐입니다.

그런데 화살표의 오른쪽 단어들을 보면 이제 'beautiful(아름다운) 소녀'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세상의 무수한 소녀들 중 그냥 아무나 하나의 어떤 소녀가 아니라, 그 무수한 소녀들 중 오직 "아름다운" 소녀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소녀들의 숫자가 많겠나요? 아니면, 그들 중 오직 "아름다운 소녀들"만의 숫자가 많겠나요?

네, 유감스럽지만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녀들은 별로 많지 않지요. 즉, beautifu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그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의 숫자가 그만큼 매우 적어져 버렸습니다.

즉, 그 의미는 "수식어"란 그와같이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특정화,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가리킵니다.

수식어

소녀는 소녀인데 도대체 어떤 소녀이냐? 결국 아름다운 소녀만을 의미합니다. 즉,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beautiful(아름다운) 이라는 단어는 위 문장에서 girl 이라는 명사를 "수식"(modify)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문장에서 그와 같이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오직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무엇, 무엇이었지요?

네, 바로 "형용사"와 "부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품사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이 있군요. 소위 말하는 "8품사"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 보셨지요?



여러분들, 위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위 그림이 하나의 영어문장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장성분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8품사라고 하는 것들 중에도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8품사란 도대체 무엇, 무엇을 말하나요?

8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사, 접속사, 전치사, 대명사

영어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성분에도 “동사”라는 말이 있고, 8품사에도 “동사”라는 용어가 있군요. 그 둘은 서로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저 위 그림에서 밑에 붉은 선으로 묘사된 부분이 바로 영어문장의 “**뼈대**”인 문장성분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뼈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바로 단어들입니다. 즉, 영어문장의 각 뼈대들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들에는 각각 여러 단어들이 뭉쳐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예컨대 하트 모양의 단어가 바로 그 뼈대의 핵심단어가 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의 모양이 각각 서로 다른 이유는 그것들의 문법적 기능들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품사**”란 어느 특정의 영어문장에서 각 단어나 구(**phrase**) 등이 하는 문법적 **역할**이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요?

어느 특정 단어의 “**품사**”들을 미리 외워둔다고 해보았자 그건 전혀 쓸모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각 영어단어들이 어떤 품사가 되는가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그 품사적 기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컨데 **have** 가 무슨 품사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을 가지다”란 의미의 “(타)동사”라는 품사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요?

네,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명사”라는 품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군요.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have>

(미리엄 웹스터 온라인 영영사전: have)

그런가하면 심지어 **have** 는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많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이 **had better**와 **have to** 에 사용되는 **have** 들이 바로 조동사 **have**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의 영어문장에서 “**have**”라는 영어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을 가지다”란 의미의 “(타)동사”라는 품사인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단어가 그 특정의 문장내에서 도대체 어떤 기능, 즉, 어떤 문법적 역할로 쓰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바로 그것이 그 단어의 그 문장 내에서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good**"이라는 단어는 대개 "좋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good**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형용사**"로만 사용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good**에 대해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 보았더니 형용사, 명사, 부사로도 쓰이는군요.

따라서 어느 특정 단어의 품사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미리 암기해 보았자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그런 "**품사**"란 오로지 그 특정의 단어가 그 특정의 문장내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go**"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그저 "가다"란 의미의 "**동사**"로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 단어를 "명사"로 만들어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까요?

The verb 'go' is a verb. (go라는 동사는 동사의 일종이다.)

위 문장에서 'go'는 결코 동사가 아니라, 주어노릇을 하는 "**명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물론, 내가 방금 그렇게 만들어 위 문장에서 이용한 것이지요.

따라서 어느 특정의 단어가 언제나 반드시 어느 특정의 “품사”라는 생각은 이제 잊어 버리십시오.

그대신 어느 특정의 단어가 어느 특정의 문장내에서 도대체 어떤 품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식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형용사”(adjective)

명사 또는 명사구나 명사절 등 “명사 동등어구”(=명사류)를 수식하는 것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참고: “명사류”란 말은 이 책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명사류”를 수식하는 영어 단어나 구(phrase) 등은 모두 “형용사(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oy 라는 영어문장에서 a 란 소위 “부정관사”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 “어느 하나의 소년”이라는 의미로서, 결국 그 a 라는 영어단어는 뒤에 있는 “명사”인 “boy”를 수식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관사인 a 라고 하는 것도 위 문장에서는 광의의 의미에서 결국 "형용사"의 일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adverb)

"동사(류)" "형용사(류)"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단어나 구를 "부사(류)"라고 합니다. 부사류란 부사, 부사구, 부사절 등을 말합니다.

a really pretty girl (어떤 하나의 정말로 예쁜 소녀)

really(정말로) pretty(예쁜)

위 문장에서 "예쁜"이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를 꾸며줄까요? 네,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인 "소녀"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예쁜"이라는 단어는 명사를 수식해주니 분명히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쁜"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정말로"라는 단어는 어느 단어를 꾸며줄까요? 예쁘긴 예쁘데 "어떻게"(how) 예빠요?

정말로 예쁘답니다,

결국 really(정말로)라는 단어는 바로 뒤의 "예쁜"(pretty)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 있군요. 따라서 "정말로"(really)라는 단어는 뒤의 형용사인 "pretty"를 수식해주니 "부사"가 되겠네요.

이제 어느 특정의 문장내에서 어느 특정의 단어들(어떤 품사로 결정되는지, 그 문법적 과정을 이해하겠나요?

영어문장들의 “수식어”에 대해서는 위 두 가지(형용사, 부사)가 전부입니다.

자, 이제 그럼 매우 흥미진진한 “전치사”(preposit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지요.

“전치사”(preposition)

전치사를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position(위치)이라는 부분과 pre-(앞-)이라는 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 위치해 있는 말”이 바로 “전치사”(前置詞)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마도 일본인 학자들이 번역했을 “전치사”라는 말은 정확히 preposition을 직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학생들이 대개는 in, of, with, to, at 등등이 전치사임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치사”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치사란 도대체 “무엇” 앞에 위치해 있는 말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즉, “전치사란 ‘**명사(류)**’ 앞에 위치해 있는 말”임을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은 바로 위 말을 뒤집은 말인 “**전치사의 뒤에는 반드시 명사(류)가 온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치사와 관련하여 영문법적으로 중요한 점은, 어느 특정의 영어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전치사”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치사에 딸린 “**명사(류)**”가 도대체 문장의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 “**명사류**”라는 용어는 내가 만든 용어로서, 영문법적으로 “명사” 노릇을 하는 모든 단어들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즉, 그것이 단 하나의 단어든,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든, 아니면, 아예 완성된 문장인 절이든)

전치사의 기능

the book

the table

여러분들, 위 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각각 책, 테이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위 두 단어들의 서로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위 두 단어들 사이에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그저 두 단어들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제시되어 있을 뿐이지요.

즉, 위 두 단어들은 실제적으로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그저 나열만 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두 단어 사이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결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the book on the table

위 문장은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책

이라는 의미가 되어 버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두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 구조가 되었군요.

다시 말하면, “전치사”란 앞뒤의 단어들이나 구 등을 서로 의미있는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전치사 on” 뒤에 반드시 “명사(류)”인 “the table”이 오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앞 부분에서 이미 배웠던 문장을 다시 가져와 들여다 보기로 합시다.

In the middle of the jungle was a river that all the animals went to every day.

여러분들, 위 문장에서 무엇이 전치사인지 찾아낼 수 있나요?

(that 이하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니 일단 그 앞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로 하지요. 즉, river 까지만.)

네, 바로 in, of 라고 하는 단어들이 “전치사”들입니다.

왜 그것들이 전치사들일까요?

그것들 뒤에는 모두 “명사”들인 “the middle”, “the jungle”이 오고 있군요. 따라서 그 단어들은 전치사임이 분명합니다.

(참고: 소위 “관사”라는 a 나 the 가 붙어 있는 단어들은 모두 “명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a 나 the 는 모두 “형용사”의 일종으로서 언제나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

이제 어느 단어가 “전치사”인지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치사에 딸린 식구들이 누구인지** 즉, 문장의 어느 부분까지가 그 전치사에 복종하는 졸병들인지를 구별해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잘 안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In the middle (가운데에) **of the jungle** (정글의)

위 문장에서 **In, of** 는 분명히 전치사들인데, 위와 같이 여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문장을 우리는 “구”(phrase)라고 부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시작되는 “구”들을 특별히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전치사구의 “**대장**”(Head)은 과연 누구일까요?

In the middle

예컨데, 위 전치사구에서 **대장**은 명사 **the middle** 이 아니라, **전치사 “In”**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치사구를 지배하는 단어는 바로 “전치사”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 전치사구에서 **the middle** 은 뭐냐? 말하자면, 위 전치사구의 “대장”인 **In의** **졸병** 신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명사부분을 영문법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즉, 위 문장에서 **the middle** 은 **전치사 in의 목적어**라는 말입니다. 즉, **the middle**은 “**목적격**”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전치사 뒤에 오는 **인칭대명사**들은 모두 “**목적격**”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for him** 또는 **to them** 등등.

자, 그럼 다시 원래의 문장으로 돌아가서...

of the jungle (정글의)

는 하나의 “전치사구”인데 그런 전치사구들은 반드시 “**수식구**”들입니다. 이제 내가 왜 “수식어”를 다루는 항목에서 “전치사구”를 다루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위 “정글의”라는 의미의 전치사구는 도대체 그 문장의 어느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네, 바로 앞에 있는 단어인 “**명사**” **the middle** 을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정글의 가운데” 라는 의미이지요.

The middle of the jungle

뭐라고요? 전치사구 of the jungle 이 명사인 the middle 을 수식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저 앞 부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었나요?

“명사(류)”를 수식해주는 것들은 모두 “형용사(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of the jungle 은 수식구로서 “**형용사구**”노릇을 하는 전치사구가 되겠군요. 왜냐면 그것은 단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 전치사구는 도대체 무엇을 수식하고 있을까요?

In the middle (가운데에)

(강이 **가운데에 있었다**) **was a river**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In the middle 이라는 전치사구가 도대체 무엇을 수식해주는지? 네, 그렇군요. 바로 본동사인 was 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런데 저 앞부분에서 “동사”를 꾸며주는 것들을 뭐라고 했나요? 네, 그런 것들을 모두 “부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in the middle 이라는 전치사구는 수식구로서 “**부사구**”가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in the middle** 과 동사 **was**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들의 관계가 눈에 잘 안들어 오지요?

그래서 내가 그 문장을 보통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원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었죠.

A river was in the middle of the jungle.

(어떤 하나의 강이 정글의 가운데에 있었다)

이제 그 문장의 원래의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나요?

자,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위 문장의 뼈대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 했나요?

네, 주어(**river**) + 동사(**was**)로만 되어 있는 **1형식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와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뭔가요? 네, 모두 영어문장의 장식품들입니다. 즉, 수식어나 수식어구들이지요.

in the middle, of the jungle 등이 바로 수식어구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전치사”란 단어들 또는 여러개의 단어들이 모인 구 또는 절 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류)”가 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일 영어문장에서 전치사를 발견한다면, 그 전치사에 딸린 “졸병”들이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찾아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 전치사의 졸병들은 당연히 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 되겠지요

위 예문에서는 다행히 단지 하나의 명사들만이 “전치사의 목적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매우 긴 문장(예, “명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구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것이 도대체 영어문장의 어느 단어나 어느 부분을 꾸며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전치사구란 본질적으로 “수식어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치사구가 형용사 노릇을 하는지, 부사 노릇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수식어와 전치사구(보충)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s in recent years

recent=최근

여러분들 위 문장의 영어단어들 중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중1수준의 영어단어들 같은데요.

여러분들, 위 문장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나요? 설마하니 어렵게 느끼지 않겠지요? 모두 다 아는 쉬운 단어들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위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군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앞에서 강의한 수식어와 전치사구 부분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이제 위 문장 정도는 아주 쉽게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앞 강의에서 전치사구와 수식어에 대해 배웠는데, 이제 그 지식을 활용하여 위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 부분 강의에서 얘기했었지요. 소위 부정관사라고 하는 a 나 정관사라고 하는 the 등은 모두 사실은 형용사의 일종이라고 말입니다. 즉, 그것들이 형용사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말, 즉, 그것들이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명사(류)”여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맨 앞에 the가 딱 붙어있군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the라는 형용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the는 어느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은가요?
네, 바로 뒤에 있는 단어이겠지요?

즉, “the use”에서 the는 use를 수식해 줍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결국 위 문장에서 “use”라는 단어는 결코 “사용하다”란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사용(함)”이라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형용사(류)”의 꾸밈을 당하는 부분들은 모두 “명사(류)”입니다. 반대로, “명사(류)”를 수식해주는 말들은 모두 “형용사(류)”들입니다.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s in recent years

앞 장에서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 여러분들, 위 문장에서 전치사들은 과연 무엇 무엇들일까요? 눈에 훤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정리하여 일부러 단어들 덩어리의 간격을 조정해 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 말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바로 “전치사”들입니다.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 in recent years

한국의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of, in, by** 등이 전치사임을 모르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학생들의 문제는 말이지요. 그런 전치사가 하는 영문법적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 강의에서 “전치사” 하면 우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법적 지식은 바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류)”가 와야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명사 앞에 있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위 문장에서 이제 각 전치사들 뒤에 “명사(류)”들이 다소곳이 뒤따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앞 강의에서 “전치사구”의 대장은 전치사이고, 그 전치사의 줄병은 바로 그 전치사 뒤를 쫓랑쫓랑 따라 다니는 “명사(류)”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소위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치사 + 명사” 형식으로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구(phrase)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사구”들을 각각 묶음으로 묶어 살펴 보도록 하지요. 아래 문장에서 각 전치사구들을 빨간색 밑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제 아래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서로 누구와 묶여 있는지 이제 눈에 훤히 보이시나요?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 in recent years

맨 앞에 있는 “the use”는 관사+명사로 된 “명사구”입니다. 또는 한 단어이니 그냥 “명사”라고 해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밑줄쳐진 단어 묶음들은 모두 전치사구들입니다. 그런데 “전치사구”란 결국 대부분은 “수식구”라고 앞 강의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각각의 전치사구들이 도대체 문장의 어느 부분을 수식해주는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맨 앞줄 부터 시작하면, of 는 (~의) 이라는 의미이니

The use of computers (컴퓨터들의 사용)

위 문장에서 뒤에 있는 전치사구 of computers 는 결국 앞에 있는 “명사”인 “the use”를 꾸며주고 있음을 알 수 있군요.

“사용”은 사용인데, 도대체 무엇을 사용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확정해주는 말이 바로 뒤에 있는 전치사구로군요. 즉, 컴퓨터들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뒤에 있는 전치사구 of computers 가 앞에 있는 명사 use 의 의미를 구체화시켜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니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노릇을 하는 전치사구로군요.

왜냐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들은 모두 “형용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학교들에서 컴퓨터들의 사용)

위 문장에서 전치사구 in schools 은 과연 어느 단어를 꾸며주고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마치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처럼 느껴지는군요. [“학교들에서”~을 사용한다] 라는 의미처럼 말입니다.

위 문장에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뭔가 하면 이제 전치사 구 in schools 가 저 앞의 명사 use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앞의 computers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즉, “학교들에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들 안에 있는 컴퓨터들”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느 쪽 해석이 옳아 보이는가요?

(물론,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영문해석에서는 위 문제는 간단히 무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간단히 “학교들에서 컴퓨터의 사용”이라고 해석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영문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므로 보다 더 엄밀하게 문법적 기능을 추적해 보고자 해서 따져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위 두 가지 해석 모두 그럴듯해 보입니다. 즉, 위 문장의 구조가 이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저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영문구조의 문법적 애매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Syntactic ambiguity)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use**가 본래대로 동사로 나타나는 원래의 문장에서는 틀림없이 각 전치사구들의 품사적 기능들이 명확했을 것인데 그것을 전치사들을 이용하여 문장을 극도로 축약해 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원래의 문장은 아마도 다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The students use computers in schools.

(학생들은 학교들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위 문장에서 **use**는 이제 동사임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 **computers**는 동사 **use**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군요. 그러나 전치사구인 **in schools**는 여전히 동사 **use**를 수식해 주는 부사구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computers**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구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 하군요. (하지만, 여기서 나는 일단 동사 **use**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in schools** 라는 전치사구가 아래 문장에서는“명사(구)” **the use**를 수식해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군요. 그런 경우에 **in schools**는 결국 “**형용사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s in recent years

나머지 두 개의 전치사구들도 위와 같이 따져보면 결국 모두 “형용사구” 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위 문장의 전치사구들은 모두 맨 앞의 명사인 **the use**를 수식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위에 예를 든 문장은 1형식~5형식 문장들 중에 과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나요? 즉, 위 문장이 “**완결된 문장**”이라고 생각되나요?

즉, 위 문장 속에 “주어”나 “동사”가 있나요? 아니면, 목적어가 있나요? 그렇게 전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 단어들의 나열을 내가 비록 “문장”이라고 불러왔지만 엄밀하게는 위 단어들의 나열은 결코 “(완결된 형식의) 문장”(sentence)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단어들의 나열들 속에 “주어 + 동사”의 “빠대구조”가 있으면 그것을 “절”(Clause)이라고 하고, “주어 + 동사”의 구조가 없는 단어들만의 나열은 그냥 “구”(phrase)라고 부른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 단어들의 나열에는 그 어디에도 “주어, 동사”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군요. 따라서 위 단어들의 나열은 “문장”인 “절”이 아니라, 그저 단어들의 모임인 “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위 단어들의 나열은 과연 무슨 구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위 단어들의 나열 중 “대장”(Head)이 되는 단어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 단어들의 전체 나열 중 맨 앞에 있는 **the use**라는 명사가 대장임이 눈에 보이시나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모두 전치사구들로서 단지 그 명사인 **the use**를 꾸며주는 장식품들, 즉, **수식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결국 위 단어들의 모임은 사실은 단지 하나의 명사인 **the use** 만 있는 경우와 문법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명사(류)**”, 즉, 명사구에 불과하군요.

자, 이제 위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영문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 단어들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가 된다는 말은 이제 그 전체가 마친 단어로 된 명사나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명사(류)**”가 할 수 있는 영문법적 역할들은 과연 무엇들일까요?(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명사(류)”가 담당할 수 있는 영문법적 역할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주어”, “목적어”, “명사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등입니다.

위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 “주어, 목적어, 명사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들은 반드시 “명사(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일 어떤 단어들의 모임이 주어, 목적어 노릇 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명사(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위 명사구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도록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There has been some increase **in**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s in recent years.](#)

(최근년에 학교들에서 학생들에 의한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약간의 증가가 있어왔다.)

여러분들, 위 문장의 **빠대구조**가 보이나요?

increase(증가)는 위 문장에서 “명사”로서 주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has been**이라는 **be** 동사의 현재완료형이네요. 즉, 도치 문장입니다. 그리고 1형식 문장입니다. 즉, 나머지 단어부분들은 모두 장식품들인 수식어구들입니다.(참고: 맨 앞의 **there**는 주어가 아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사구가 파랗게 칠해진 부분인데, 위 문장의 어디에 끼워져 있는지 보이나요?

네, 바로 전치사 **in** 의 뒤에 양전히 앉아 있군요. 왜냐면 그 명사구 전체는 전치사 **in** 의 종병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명사구는 이제 위 문장에서 전치사 **in** 의 목적어로서 **in** 과 더불어 새로운“전치사구”를 형성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매우 긴 전치사구로군요.

그런데 전치사구는 수식구로서 누군가를 수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문장에서는 바로 앞의 명사인 **increase**(증가)를 수식하고 있군요. 명사를 수식하니, 그건 “형용사구” 노릇을 하는 전치사구로군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매우 복잡해 보이는 단어들의 나열이었지만, 그러나 영문법적 구조로는 아래와 같은 매우 단순하기 짝이 없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유도부사 there)+ 동사 + 주어 + 전치사구(수식구=형용사구)

위에서 명사구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위에서 배운 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등등으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명사구”이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언제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원래의 문장이 본래는 어떤 형태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Students use computers in schools in recent years.

(학생들은 근년에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 3형식 문장)



The use of computers in schools by students in recent years (명사구)

위에 있는 문장에서 computers는 목적어이고, use는 동사가 되어 결국 원래는 3형식 문장이었군요.

그러나 밑에 있는 문장에서 use는 명사로 사용되어, 결국 그 전체가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행동하는 명사구가 되었네요.

그리고 아래 문장에서 빨간색으로 밑줄친 전치사구들은 이제 모두 명사인 us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들이 아니라, 동사인 use를 수식하는 "부사구"들이 되어 버린다는 점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Students use computers in schools in recent years.

참고: 전치사들

at, for, with, from, into, because of, out of, in spite of,
considering

위 전치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단지 하나의 단어로 된 것도 있고, 두 단어나 세 단어 등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 형태가 마치 ~ing 꼴의 현재분사처럼 생긴 것도 있음을 눈여겨 보세요.

8. 어순과 품사의 중요성

많은 한국학생들은 영어의 어순이나 품사 및 영어단어들 사이의 수식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영어단어들의 뜻만 가지고 영어문장을 어거지로 우리말로 그럴듯하게 적당히 “**때려맞추어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즉, 어느 특정의 영어문장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단어들의 뜻만 알아가지고 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으로 조합하여 해석해보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이지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엉터리 해석들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I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위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위 문장이 위와같이 해석되는 이유는 **I**가 주어이고, **a book** 이 목적어이며, **have** 가 타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위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래 문장이 됩니다.

A book has me. (책은 나를 가지고 있다)

저 위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위치를 바꾸었으므로, 그 해석도 당연히 위와같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위 문장의 예는 문장구조가 워낙 간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문장구조가 조금만 더 복잡해 진다면, 어순이 뒤바뀐 경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The girl walks in the forest. (1)

The girl in the forest walks. (2)

walks: walk(걷다)의 3인칭 단수 현재시제, forest: 숲

여러분들, 위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똑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다만 전치사 in 으로 유도되는 전치사구인 in the forest(숲 속에서) 라는 부분의 위치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두 문장의 의미는 정확히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다른 것일까요?

자, 그럼 이제 지난 강의시간에 배운 실력을 활용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치사구”란 근본적으로 “수식구”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전치사구가 뭔가를 수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 문장들에서 **in the forest** 라는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이제 위 두 문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영어의 수식구들은 대개 바로 자기의 앞에 있는 단어들을 수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1)번 문장의 경우, 전치사구 **in the forest** 가 바로 앞에 있는 동사 **walks**를 수식하겠군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치사구 **in the forest**는 “부사구”가 되겠군요. 그래서 그 의미는

그 소녀는 숲속에서 걷는다. **(1)**

가 되겠군요.

그리고 (2)번 문장의 경우, 그 전치사구가 바로 앞의 명사인 **girl**을 수식해 주겠군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치사구는 “형용사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는

숲속에 있는 그 소녀는 걷는다. **(2)**

위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드나요?

다시 말하면, 수식구의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그 수식구가 수식하는 단어가 달라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 문장의 의미도 달라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순의 중요성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더 실감이 날 만한 문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지요.

The boy sat in the chair with the broken arm. (1)

The boy with the broken arm sat in the chair. (2)

sat: sit(앉다)의 과거형

chair: 의자

broken: break(부러지다)의 과거분사형 형용사

arm: 팔

위 두 문장들도 완전히 똑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입니다. 다만, 전치사구 with the broken arm (부러진 팔을 가진)의 어순적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 두 문장의 의미들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1)의 문장은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에 그 소년이 앉았다"는 의미이고,
 (2)의 문장은 "팔이 부러진 소년이 그 의자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가요? 두 문장의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그와같이 영어에서는 어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with the broken arm 는 각각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니, "형용사구"이고, in the chair 는 동사 **sat**을 수식해주니 "부사구"네요. 그리고 위 문장들은 모두 주어+동사로된 1형식 문장이네요.

자, 이제 좀더 어려운 부분을 볼까요? 이번엔 어순 문제가 아니라, "품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I feel poor. (1)

I feel poorly. (2)

feel = 느끼다

poor=(형용사 adjective) 가난한, 불쌍한, 뭔가 부족한, 질 낮은

poorly=(부사 adverb) not well, 별로 안좋게

여러분들, 위 두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차이점은 오직 마지막 단어가 약간 다를 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문장은 맨 마지막 단어가 **poor**라는 형용사로 끝나고 있군요. 그에 반하여, (2) 문장은 그 형용사 **poor**에 소위 부사를 만드는 어미 **-ly**가 붙어서 부사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위 문장들은 각각 도대체 몇형식 문장들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운 문법적 지식으로 각각의 문장형식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 문장들이 각각 몇형식 문장인지 눈에 훤히 보이나요?

네, (1)번 문장은 **S + V + C** 로 되어 있는 **2형식 문장**이며, (2)번 문장은 **S + V** 로 되어 있는 **1형식 문장**입니다.

즉, (1) 문장의 **feel** 이라는 동사는 “~으로 느끼다”란 의미의 동사로서 “~ ” 부분이 더 보충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형용사 보어인 “poor”가 더 필요한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 (2)번 문장에서 “부사”인 **poorly** 는 단지 수식어에 불과하므로 그것은 절대로 빼대인 문장성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 동사만 있는 **1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며, 그 때 **feel** 은 “느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즉, 더 보충해 주어야 할 부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보어가 없는 대신에 다만 수식어인 부사 **poorly**가 동사 **feel**을 수식하여, 그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줄 뿐이지요.

그래서 (2)번의 경우 “나는 형편없이 느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감각이 둔해서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1)번의 경우 해석은 “나는 돈이 없다고 느낀다” 즉,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배우겠지만, 사실 영어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위와같이 덜렁 한 문장만 있을 때의 해석입니다.

왜냐면 그와같이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있는 한 문장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들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1)번 문장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어 내가 가난하다고 느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경우엔, “내가 비참하다고 느낀다” 또는 “내가 아프다고 느낀다”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더욱 어려운 것은 **poorly** 자체도 언제나 부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비공식적 용법에서는 형용사로도 쓰이며 그때의 의미는 “**약간 몸이 아픈**”이라는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1), (2)번 문장의 형식과 의미는 완전히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외적 경우는 무시하기로 하지요. 그런 사소한 예외들까지 모두 알아야만 한다면 그건 정말 영어란 끝없이 골치아픈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대개의 일반인들은 그런 따위를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위 문장들에서 문장의 어떤 부분의 품사가 달라짐으로써 문장의 형식도 달라져 버리고, 나아가 동사도 다른 형식의 동사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문 하나를 더 들기로 하지요. 아래 예문들도 위와 문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설명이 되는 문장들입니다.

My boyfriend smells bad. (bad=형용사) (1) (2형식)

My boyfriend smells badly. (badly=부사) (2) (1형식)

bad =(형용사) 나쁜,

badly =(부사) 매우 안좋게

- (1) 내 친구는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
- (2) 내 친구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냄새 능력이 나쁘다)

- (1)번 문장: smells = ~ 한 냄새가 나다 (보어 필요)
- (2)번 문장: smells = 냄새를 맡다 (완전 자동사)

어떤 특정의 구체적 영어문장 내에서 각 단어들의 문법적 기능인 “**품사**”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예문 하나를 더 들기로 하지요.

The film wasn't all that good.

film=영화

위 문장의 단어들은 그야말로 중1 수준의 단어들이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명해야 할 단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위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우선, 위 문장의 뼈대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즉, 위 문장은 몇형식 문장일까요?

네, 그것을 알려면 우선 “동사”를 찾아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문장의 뼈대를 건설해가는 “대장”은 바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was** 라는 **be** 동사의 과거형이군요. 따라서 위 문장은 대개 2형식 문장이거나, 아니면, 1형식 문장이겠네요.

왜냐면 **be** 동사는 그 뜻이 오로지 두 가지 밖에 없으므로 그 두 가지 문장형식 밖에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좀 수상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good**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ood** 의 대개의 의미가 뭐죠?

네, 대개 “좋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be**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구요? 그렇다면 그것은 곧 **S + V + C** 라는 형용사 보어를 갖는 2형식 문장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 문장은 2형식 문장이고, 그 주격보어는 형용사 **good** 입니다.

The film wasn't good.

n't=(not 의 축약형): not=부사 (이유: 동사 수식)

위 문장의 의미는 “그 영화는 좋지 않았다”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문장에서의 **all that** 은 도대체 뭘까요?

네, 눈치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위 문장의 뼈대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그 나머지들이니 그건 틀림없이 장식품들인 “수식어”들이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수식어라는 말은 그것들은 적어도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부사”여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수식어에는 형용사, 부사 둘 밖에 없으니까요.

The film wasn't that good.

일단 **all** 은 제거하고, 형용사인 **good** 의 바로 앞에 있는 **that** 의 품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 보도록 합시다.

문장형태상, **that**은 과연 어느 단어를 수식해줄 것 같나요? 네, 바로 뒤의 형용사를 꾸며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들은 대개 형용사 바로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really good** (정말로 예쁜) 이라는 문장을 아마 앞에서 배웠을텐데, 그 때 부사 **really**는 형용사 **good** 의 바로 앞에서 뒤에 있는 형용사 **good** 을 꾸며주는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hat** 은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 **good** 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영어에 의하면 **that** 은 대개 “(지시)대명사”이거나 “(지시)형용사”또는 “접속사”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that**의 품사가 과연 그것 뿐인지 우리는 미리엄 웹스터 사전을 찾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즉, 우리의 목표는 that 이 정말로 "(지시)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왜냐면 저 위 문장에서 우리는 뜬금없이 그것이 "부사"일 수 밖에 없다는 문법적 추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that

17 ENTRIES FOUND:

- 1) that (pronoun) **대명사**
- 2) that (conjunction) **접속**
- 3) that (adjective) **형용사**
- 4) that (pronoun) **대명사**
- 5) that (adverb) **부사**
- all that (adverb) **부사**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hat>

that 는 위와같이 여러 품사로 쓰이는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문장들에서 여러 품사로 사용되고 있군요.

That is my father.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 (지시대명사)

that brother of yours (너의 형제들 중 그 형) (지시형용사)

"It was the worst movie that I have ever seen." (관계대명사)(내가 일찌기 본 영화들 중에서 그건 최악의 영화였다.)

“Was it really **that** bad?” (지시부사)

(그게 정말로 **그 정도로** 나빴어?)

“Yes, it was **that** bad.” (지시부사)

(그래, 그게 **그 정도로** 나빴어.)

I need a nail **about that** long. (지시부사)

(나는 대충 **그 정도로** 긴 손톱이 필요해.)

그런데 위 사전에 보니, **all that** 자체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음이 보이는군요.

all that =부사 (so 의 의미)

to an indicated or suggested extent or degree : **so**

Don't take his threats **all that** seriously.

(그의 위협을 너무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어쨌든, 우리는 **that**가 부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that**를 모두 “지시”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며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저 사람” 등.

위 사전에서와 같이 **all that** 전부를 그냥 “부사”라고 보면 문제는 간단히 풀리는군요.

The film wasn't all that good.

그 영화는 그런 정도로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that**가 부사임은 알았는데, 그 앞에 있는 **all**의 품사와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e film wasn't all that good.

어쨌든, **all**이라고 하는 단어는 **be** 동사 뒤에 있어서 바로 뒤의 단어들을 꾸며줄 수 밖에 없으니, 하여튼 무조건 “**부사**”일 것임은 영문법적 논리로 이미 쉽게 추론해 낼 수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리엄 웹스터에서 **all**을 찾아보았더니, 명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all**이 “**부사**”로 쓰일 경우의 의미를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들이 “**아주, 그저, 오직**” 정도의 의미들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아래 문장의 완전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The film wasn't all that good.

그 영화는 **아주** 그런 정도로(=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리속이 너무 복잡해졌나요?

위와같은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보여준 이유는 영문법이란 도대체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위와같이 세세히 따지는 과정을 보고서 어떤 학생들은 미리 기가 질려서 말합니다. 모든 영어문장들을 그렇게 문법적으로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도대체 어느 하세월에 그 많은 영문원서량을 읽어치울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런 질문이 사실은 상당히 바보 같은 질문이었음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모두 배운 다음에는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모든 문장들을 위와같이 섬세하게 따져가면서 읽지는 않거든요. 그럼, 위와같은 정밀한 문법적 분석을 나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일까요?

어떤 특정 영어문장들의 의미를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만일 그 문장들의 의미가 문법구조상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 때에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란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즉, 영문법이란 영문해석에서 뭔가가 막혔을 때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무기인 셈입니다.

(여담) **all that**

and all (공식적) = **and all that**(비공식적 표현) = and + 명사
=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모든 것

예: **She likes grammar and all that.**

(그녀는 문법 관련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좋아한다.)

9. 구와 절

“**구**”(phrase)란 여러 단어들(단어)이 모여 문법적으로 하나의 의미있는 그룹을 이루되, 주어와 동사가 **없**는 단어들의 모임을 말한다.

“**절**”(clause)이란 주어와 동사가 **있**는 여러 단어들의 모임을 말한다. 결국 절이란 하나의 문장이다.

Cows eating grass (1)

Cows eat grass. (2)

cows=소들, grass=풀, eat=먹다

여러분들, 위 문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나요?

(1),(2)번 문장들 모두 완결된 “**문장**”(sentence)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완결된 “**문장**”이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5형식 문장들을 말합니다.

(1),(2)번 문장은 과연 몇형식 문장들인지 알고 있나요?

(1),(2)번 문장의 해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각자 해석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한국의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1),(2)번 문장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위 (1),(2)번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똑같이 해석하고 만답니다. 즉, 두 개 모두 "소들이 풀을 먹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는 사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즉, 많은 학생들은 위 문장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영문법 법칙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어들의 의미만 알고 위 문장의 의미를 자기들의 상상력에 따라 단어들의 의미를 적당히 조합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를 대충 "때려맞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장님 꼬끼리 만지기식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까요?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외우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영어를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학생들이 단지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단지 점쟁이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에 관련된 기초적 영문법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위 문제와 관련된 문법은 그야말로 쌍기초적 영문법으로서 영문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할 매우 기초적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녀도 그 누구도 그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나는 위와같은 수준의 영문법 정도는 이미 중2시절에 독학을 통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액과외도 많이 받고, 좋은 학원들에서 학원수업도 많이 받아 옛날 학생들 보다도 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 학생들이 위 두 문장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위 문장들의 차이점은 오직 **eat**와 **eating** 의 차이 뿐입니다.

즉, 학생들은 **eating** 이 문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eating = eat + ~ing

위 **eating** 이라는 단어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소위 “**현재분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사의 원형(**root=뿌리**)에 **~ing** 꼴을 덧붙인 형태입니다.

그러면 “**현재분사**”의 문법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현재분사**”의 영문법적 기능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할 내용은 그것이 “**동사**”의 기능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형용사**” 노릇도 한다는 점입니다.

1. 그것이 “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말은 “(의미상)**주어**”를 가질 수도 있고, 나아가 “**목적어**” 및 “**보어**” 등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가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그것이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 “형용사”하면 우선 떠올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 그리고 “(형용사) **보어**”가 될 수도 있는 단어라는 점, 그리고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꾸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 (1)번 문장의 **eating** 은 현재분사이므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적 기능도 있다는 사실.

Cows **eating grass** (1)

이제 위 문장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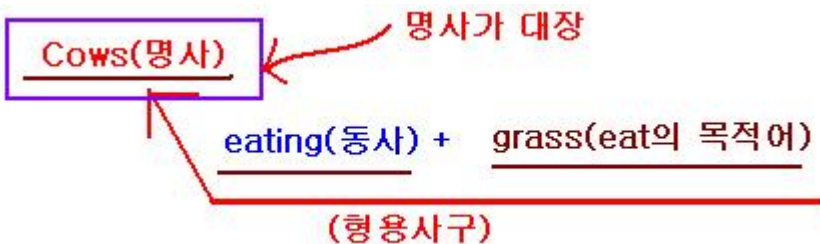
eating=

- 1)형용사일 때 명사를 수식: 앞에 있는 명사인 cows를 수식
(먹고 있는 **소들**)
- 2)동사일 때 목적어를 갖는다: grass라는 목적어
(**풀을** 먹고 있는)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풀을 먹고 있는 소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eating grass 라는 **형용사구**가 명사인 cows 를 수식해주는 셈이 됩니다.

결국 (1)번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는 완결된 문장이 결코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명사와 완전히 똑같은 문법적 기능을 하는“**명사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위 문장이 “명사구”가 된다는 말은 위 문장 전체를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명사”는 주어라 될 수 있으니, 위 문장 전체를 가져다 주어로 삼은 문장도 가능하겠지요?

Cows eating grass are visible from the highway.

(풀을 먹고 있는 소들이 고속도로에서 보인다.)

위 빨간색으로 표시된 명사구 전체가 “주어” 노릇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위 명사구를 목적어, 명사보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활용하는 문장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문장은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명사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2)번 문장은 완전한 하나의 문장으로서 목적어를 가진 3형식 문장이지요. (S+V+O)

Cows eat grass. (2)

그래서 그 의미는 “소들이 풀을 먹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2)번 문장은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며, (1)번 문장은 주어, 동사가 없는 “구”에 불과하지요.

명사절 (절 전체가 명사 노릇을 하는 경우)

How you choose to conduct your private life is your own business! (주어 노릇 명사절)

(너 자신의 사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다!)

위 빨간줄 친 부분이 비록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절이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그 전체가 위 문장 전체의 본동사인 is 의 주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hat he is honest is clear. (주어 노릇 명사절)

(그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I know **that he is honest.** (목적어 노릇하는 명사절)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

Men differ from brutes in that they can think and speak.

(전치사 in의 목적절 노릇을 하는 명사절)

(인간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짐승들과는 다르다.)

위 문장에서 전치사 in 뒤에 단지 간단한 한 단어의 명사가 아니라 매우 긴 문장의 "명사절"이 오는데, 영어문장들에서는 그런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종속절과 주절:

[**종속접속사** + 주어 + 동사...] 로 된 절이 단독으로는 완성된 문장의 의미가 아닐 때, 그것을 "종속절"이라고 하며, 그러한 종속절은 반드시 "주절"(=독립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As I was sick. (내가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었다고 생각되나요? 문장의 의미가 어딘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더 보충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러나 아래 문장의 의미는 어떤가요?

I went to bed. (나는 자러 갔다.)

네, 위 문장은 그 자체로서 그 의미가 완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 두 문장을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As I was sick, I went to bed.

(나는 아팠기 때문에, 자러 갔다.)

네, 바로 앞문장과 같이 그 의미가 완결되지 못한 문장 부분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뒤의 문장과 같이 그 자체로서 이미 완결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장 부분을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절은 주절을 수식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은 결국 종속절이 주절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자러갔다”: 동사 수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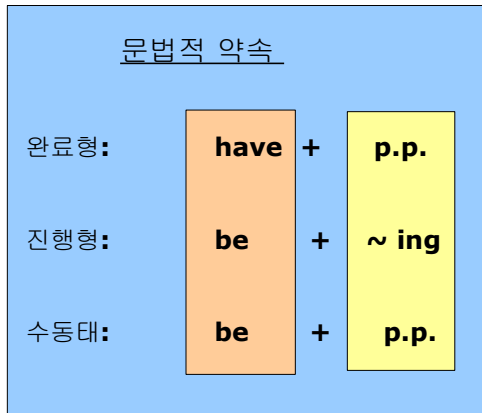
영어 문장을 보면, 우선 어떤 단어들이 다른 어떤 단어들과 내용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룹으로 묶여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관계를 갖는 것들은 “구”나 “절”이 될 것이다.

그와같이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구”와 “절”도 마치 하나의 단어로 된 명사, 형용사, 부사 등처럼, 각각 명사 노릇, 형용사 노릇, 부사 노릇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영어문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같은 “구”와 “절”들이 문장의 뼈대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노릇을 하는지, 아니면 단지 수식구나 수식절에 불과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것들이 “수식구” 또는 “수식절”이라면 그것들이 각각 문장의 어느 다른 부분을 수식해주는지도 찾아내야만 한다. 그래야만 문장 전체의 문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완료형, 진행형, 수동태 - 문법적 약속



여러분들, 현재완료, 과거완료, 현재진행형, 과거진행형, 수동태 등등에 대해서 매우 많이 들어 보았지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배웠나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서로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이번 제10강에서 위 세가지를 모두 몽똥그려서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위 공식들은 모두 말하자면 “**문법적 약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완료형을 **have + p.p.**(=과거분사) 꼴이 아니라, 만일 **go + p.p.** 꼴로 하기로 사람들이 약속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쯤 **go + p.p.** 가 현재완료형이라며 열심히 암기하며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즉, 위 문법적 형태 자체는 하등의 중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하기로 문법적으로 약속된 것이니 그대로 암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그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의 문법적 의미들입니다.

위 문법적 약속들은 모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된 앞부분과 노란색으로 된 뒷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소위 “**조동사**” 부분으로서 아무런 실제적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 과거, 미래, 현재완료 등의 “**시제**”와 몇인칭 문장인지 그 **인칭**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즉, 현재완료형 끝에 **have**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have** 의 본래 동사적 의미인 “가지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아무런 뜻도 없고, 그저 “현재시제” 및 1인칭 또는 2인칭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주황색 부분의 단어들은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즉, 주황색 상자로 된 앞부분의 말들은 모두 “**시제**”와 “**인칭**”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입니다.

(참고: “조동사”란 본동사를 도와주는 보조동사들을 말합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본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may, can, could** 등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상자로 된 뒷부분의 단어들이 진짜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인데, 모양이 **p.p.**(=과거분사꼴) 및 **~ing**(현재분사꼴)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본동사**”들입니다

즉, 노란색 상자 부분이 바로 실제 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진 “**본동사**”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어쨌든, 노란색 상자의 뒷부분은 모두 “**분사**” 형태들이군요.(과거분사 및 현재분사)

자, 주황색 상자 부분이 바로 “시제”와 “인칭”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완료, 과거완료, 현재진행형, 과거진행형, 미래진행형, 현재 수동태, 과거수동태, 현재완료 수동태, 과거완료 수동태 등을 만들려면 모두 그 부분을 각각의 시제와 인칭에 맞게 변형시켜주면 되겠군요

예를 들어, 현재 진행형을 만들려면 **be** 동사의 현재형인 **am, are, is** 중에 적당한 것을 선택하고 그 뒤에 **~ing** 꼴의 현재분사를 붙여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과거진행형을 만들려면, 시제 부분을 과거로 만들어주면 되겠군요.

예) He **is reading** a book. (현재진행형)

He **was reading** a book. (과거진행형)

위 문장들에서 **본동사**는 **is, was** 따위가 아니라, 바로 “**reading**”이라는 사실을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Is, was** 따위는 그저 위 문장들의 시제와 인칭을 나타내주기 위한 “보조동사”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첫번째 문장에서, **is**와 **reading** 중 어느 것에 실제적 뜻이 있나요? 네, 바로 **reading**에 실제적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것이 바로 본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조동사인 **is**에는 아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재진행형이라는 문장에서는 그건 그냥 문법적 기호에 불과합니다.

현재완료: **have(또는 has) + 과거완료(P.P.)**

현재완료형 문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have+p.p.** 꼴로 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현재완료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해왔고, 현재도 계속해서 그런 상태라는 의미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완료형 문장을 한국어말로 번역하면 대개 “~했다”로 되어 마치 과거형 문장처럼 되어버리곤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현재도 계속 그런 동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현재완료의 의미입니다.

I live in Seoul. (1) : 현재형

I have lived in Seoul. (2) : 현재완료형

(1)문장의 의미는 “나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이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바로 (2)번 문장인 현재완료형 문장에 있습니다, 즉,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는 서울에 살아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완료 용법에는 소위 4가지 용법(완료, 경험, 결과, 계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 위에서 말한 현재완료시제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가지 용법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대개는 **just, ever, since** 등 특정의 “부사”나 전치사 등이 수반되어 그것이 어느 용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완료용법)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지금 막** 숙제를 끝냈다)

(경험) **I have ever been to London.**

(나는 **일찌기** 런던에 **가봤다**.)

(결과) **I have lost my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현재 없다.))

(계속) **I have lived in Seoul since 2001.**

(나는 2001년 **이래로** (계속해서) 서울에 살고 있다.)

(주의: 위 해석들 중 우리말로 마치 “~했다”는 “단순 과거”처럼 해석되는 것들도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세요.)

현재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므로, **last night**(지난 밤) 등 “과거를 명시적으로 의미하는 부사”와는 함께 쓸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과거시제로 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They ate Thai food last night.

(그들은 지난 밤에 태국 음식을 먹었다.)

I lived in Seoul in 1898.

(나는 1898년에는 서울에 살았다.)

진행형 + 수태동

여러분들, 진행형과 수동태가 문법구조적 형태상으로 서로 “사촌” 사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좀 놀랐다고요? 그러나 두 문법적 구조는 서로 사촌간처럼 아주 닮은데가 있습니다.

- 공통점: 둘 모두 **be 동사 +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

- 차이점: 진행형은 능동적 진행 의미의 현재분사(~ing)가 본동사이고, 수동태는 수동적 의미의 과거분사(p.p.)가 본동사이다.

그럼 먼저 진행형의 형태들을 살펴 봅시다.

진행형 = be + 현재분사

He is singing. (그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진행)

He was singing. (그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진행)

He has been singing.(그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완료진행)

제10강 시작 부분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진행형의 앞부분인 be 동사 부분은 단지 “시제”와 인칭만을 나타내는 부분일 뿐,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문법적 기능만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제 부분이 달라짐으로써, 현재진행, 과거진행 등으로 나누어 불리어지는 것이며, 당연히 시제들은 위에 열거된 시제들 외에도 과거완료 진행 등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진행형, 완료형, 수동태 등의 문법적 형태에서 뒷부분 단어의 끝이 현재분사 및 과거분사꼴로서 좀 우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동사”라고 하였습니다. 즉, 진행형에서는 “**~ing**” 부분이 바로 본동사라는 말입니다.

본동사란 문법적으로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네, 바로 그 부분이 동사로서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위 예문들에서는 “노래하다”란 의미가 위 문장 동사의 의미입니다.

다만, 진행형의 본동사는 “현재분사형”인데, 그 의미는 곧 그 동작이나 상태가 목하(=눈 앞에 보이는 바) 진행 중인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의: 저 위 예문들 중, 현재완료진행형이나 현재진행형이나 우리말 해석이 완전히 같은데, 그러나 그 실제적 내용은 좀 다릅니다. 즉, 현재진행형은 단지 현재 노래를 하고 있다는 단순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며, 현재완료진행형은 노래를 과거시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완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수동태 만들기 공식

수동태 = be + 과거분사

진행형에서는 본동사 부분이 “현재분사”였는데, 수동태에서는 본동사 부분이 “**과거분사**”라는 차이점이 보이나요?

즉, 진행형이나 수동태나 모두 시제 및 인칭 부분이 **be** 동사이고, 본동사 부분이 “**분사**” 형태라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참고: “분사”에 대해서는 다음 제11강에서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현재분사꼴이 “~ing”이고, 과거분사꼴이 “p.p.”라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수동태

도대체 수동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문을 들어 설명하기로 하지요.

The dog was killed by the the boy.

(그 개는 그 소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들, 그 개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나요? 아니면, 그 개는 정말 죽고 싶지 않았는데, 타의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나요? 네, 타살되었습니다.

즉, 그 개는 죽음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제3자에 의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와같이 문장의 주어가 어떤 동작을 제3자에 의해 피동적으로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을 수동태 문장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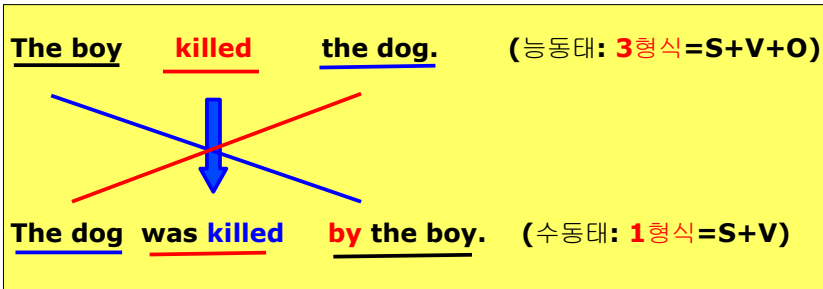
그렇다면, 위 수동태 문장이 능동태 문장으로 표현되었다면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The boy killed the dog.

(그 소년이 그 개를 죽였다.)

그렇다면 이제 능동형 문장에서 수동형 문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지요.



위 도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능동형 문장의 주어인 **the boy**가 수동형 문장에서는 전치사 **by**(~에 의하여)가 붙어 맨 뒤로 갔으며, 능동형 문장의 목적어 **the dog**가 수동형 문장의 주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동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 능동형 문장은 반드시 직접목적어(O)를 가지는 문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능동형 3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 이제 **목적어가 없는 1형식 문장**이 되어 버림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by the boy**는 수식구인 전치사구로서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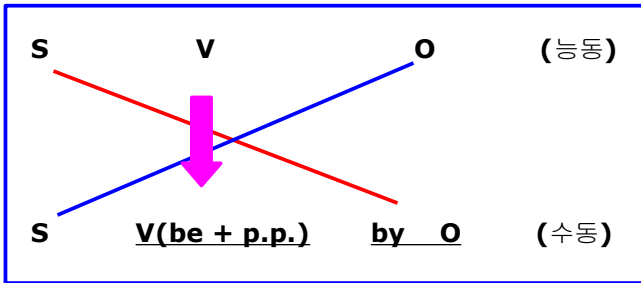
위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능동형 과거동사 killed**가 과거시제 수동형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능동형의 **killed**가 과거시제이므로, 수동형 문장의 **be** 동사 부분이 과거시제형인 **was**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만일 수동형 문장의 주어가 복수형이라면 **be**동사는 **were**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형 과거동사 killed**는 이제 수동형 문장에서는 과거분사꼴 본동사로 바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 문장에서는 능동형 문장이나 수동형 문장에서 **killed**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지만 그러나 능동형 문장에서의 **killed**는 단지 **과거시제** 형태이고, 수동형 문장에서의 **killed**는 결코 과거시제 형태가 아니라, "**과거분사**"(p.p.) 형태라는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능동형 문장이 수동형 문장으로 변환되는 것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능동을 수동으로 변환한다는 말입니다.

- 능동태 문장의 주어는 (전치사의)목적격으로 만들어 수동태의 전치사 **by** 뒤로 가고
- 능동태의 목적격은 주격으로 만들어 수동태의 주어로 가며
- 능동태의 시제는 수동태의 **be** 동사 부분에서 표현되며
- 능동태 본동사는 수동태의 과거분사꼴 본동사가 된다.
- 능동태가 진행형이나 완료형인 경우, 시제는 언제나 수동태의 **be** 동사 부분이므로 그 부분을 **be**동사의 진행형이나 완료형으로 만들면 된다. (즉, **be + being+ 과거분사** 또는 **have(has) + been + 과거분사**)

참고: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목적어가 두 개인 4형식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시중의 일반 문법 참고서를 참조할 것.(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영문법 사이트는 무수히 많음)

be동사의 진행형 꼴: be + being

be동사의 현재완료형 꼴: have(has) + been

그런데 영어문장들 중에는 정통적 영문법에 잘 맞지 않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법적 예외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도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Ergative Verbs(수동적 의미의 능동형 동사들)

약간의 동사들은 분명히 능동형 동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상 마치 수동태적 의미를 갖는 것들이 약간 있습니다.

The sun melted the snow. (태양이 눈을 녹였다.): 능동태

=**The snow was melted.** (by the sun) : 수동태

=**The snow melted.** (눈이 녹았다.) (**ergative** 동사: 수동적 의미)

ergative 동사=상태변화 동사: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

(눈 등이) 녹는다(melt), 자라다(grow) 등

참고:

수동태 문장은 흔히 주어를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또는 주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어서 별로 언급할 중요성이 없고 오히려 주어의 동작을 당하는 대상물, 즉, 능동태의 목적어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될 경우에 사용됩니다.

11. 동사류 (부정사, 동명사, [현재,과거]분사)

영어의 단문(Simple Sentence)이나 각 절(Clause)에서는 단 하나의 **본동사(main verb)**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영문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어문장들의 경우, 하나의 주절이나 종속절 등에서 동시에 여러개의 동사들이 사용되어야만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동사를 제외한 다른 동사들은 모두 본동사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필요에서 동사의 형태를 약간 변형한 **동명사, 부정사, 분사(현재분사, 과거분사)**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존 문법에서는 이것들을 동사 비슷한 부류라고 해서 "**준동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대신 나는 이것들을 "**동사류**"(Verbals)라고 부르하고자 합니다.)

참고:

이 책에서 내가 사용하는 용어들 몇 개를 정리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동사류: 동사, 동명사, 부정사, 분사

명사류: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 노릇하는 to 부정사 등

형용사류: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관사, 분사(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 노릇하는 to 부정사 등

We want build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X)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한다.)

위 괄호안의 우리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영어문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문제는 위 문장에 두 개의 동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어문장에서는 본동사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영문법입니다.

그렇다면 위 문장에 있는 두 개의 동사 중 뒤의 동사인 **build** 를 뭔가 다른 형태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컨대, 동명사 형태로 만들던, 또는 부정사나 분사 등으로 변형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We **want** **build**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X)



We **want**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O)

네, 위 문장에서는 **build** 동사를 **to**부정사로 바꾸었군요.

그래서 위 문장에는 이제 본동사가 **want** 하나만 존재해서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build** 동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중 도대체 어느 것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개 본동사의 동사로서의 성질 및 전치사의 목적어 등 주변 문법적 상황,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형태가 무엇일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명사: 동사의 원형 + ~ing

동명사란 동사 노릇도 하지만, 명사 노릇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사 노릇이란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일반 본동사처럼 동명사도 목적어, 보어,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 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며, 명사 노릇이란 일반 다른 명사들처럼 주어, 목적어, 명사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명사의 해석=~하는 것, ~하기 등 명사처럼 해석해야 합니다.)

Eating people is wrong. (사람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

위 문장에서는 동명사 eating 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people 을 동명사 자신의 목적어로 취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She is good at painting. (그녀는 그림그리기에 소질이 있다.)

위 문장의 경우 동명사 painting은 전치사 at의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사: to + 동사의 원형

부정사(infinitive)란 원래 시제나 인칭이 있는 본동사와는 달리 시제나 인칭이 없는 동사를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동사의 원형(root 뿌리)을 말한다. 예컨대, **am, are, is** 등은 현재시제의 1인칭, 2인칭, 3인칭의 **be** 동사들입니다.

그러나 **am, are, is**의 원형 동사는 **be** 이다. 따라서 **am, are, is, was, were** 등을 부정사로 만들려면 그 원형 동사인 **be** 동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사에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다. **to** 있는 부정사란 **to + 원형동사** 형태를 말하고, **to** 없는 원형부정사의 경우 그 형태는 그냥 원형 동사를 부정사로 사용합니다.

(참고: **to** 부정사에 붙은 **to** 는 문법적으로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그 **to** 를 전치사 **to**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치사 **to**가 아닙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to** 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문법적 기능어 중에 하나로서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는 문법적 기호일 뿐입니다. 즉, 전치사 **to**는 실제적 의미가 있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to** 부정사에 사용되는 **to**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부정사의 용법

부정사의 용법에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정사들이 그 문장 내에서 어떤 품사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명사 노릇을 하는 부정사라면 그것이 바로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To know her is to love her.

(주어노릇) (명사보어 노릇)

(그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위 문장에서 부정사들은 모두 명사 노릇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를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명사** = “~하는 것”이라는 우리말로 대개 해석이 됩니다.)

주의할 점: 부정사는 원래 동사이므로, 여전히 동사 노릇도 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 문장에서도 각각 목적격 **her** 를 부정사의 목적어로 취하고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 좀 마실 것을 원하십니까?)

마실 어떤 것 즉, 명사인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부정사이니 형용사 노릇하는 부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something과 같이 단어의 뒷부분이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은 모두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들이 그 명사의 뒤에 옵니다.

Something in the cupboard smells odd.

(찬장 안의 뭔가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

We thought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because we hadn't heard from you.

(우리는 너로부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해서, 너에게 뭔가 나쁜 일이라도 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I heard something rather worrying at work this morning.

(오늘 아침 작업장에서 뭔가 다소 걱정되는(겁나는) 소리를 들었다.)

Is there something you'd like to say?

(뭔가 얘기하고 싶은게 있나요?)

위 노란상자 안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모두 명사 **something**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노릇을 하는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 또는 형용사절**입니다.

to 없는 원형부정사 예문들에 대해서는 앞 부분 강의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 등을 다룰 때 이미 보았는데, 다시 소개하면 아래 예문들에서와 같습니다.

아래 예문들은 모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만드는 5형식 문장들로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바로 **to** 없는 원형부정사들입니다.

We watched him clear the table.

(우리는 그가 테이블을 청소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They heard the thief crash through the door.

(그들은 그 도둑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She made me do it.

(그녀는 내가 그것을 하도록 시켰다.)

We helped her finish the homework.

(우리는 그녀가 숙제를 끝내도록 도와 주었다.)

주의: 5형식 문장에서 위 문장들에서와 같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없는 원형부정사가 온다고 해서, 언제나 그래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부정사가 와야만 하는 경우에만 그럴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만일 위 문장들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부정사가 아니라, 현재분사 등이 올 경우에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예문들에 나오는 빨간색 칠 된 동사들도 사실은 모두 **to** 없는 원형 부정사들입니다.

I must go now.

You mustn't smoke here.

We should sing a song.

I don't know.

You had better clean up your room.

위 원형부정사들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must, had better** 등의 조동사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나 인칭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원래적 형태인 원형동사(**root, 뿌리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데, 그것들은 모두 **am, are, is** 의 **be** 와 같은 역할을 하는 원형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to**) 부정사라고 부르는 것들과는 좀 달리 위 원형부정사들은 모두 "**본동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 두세요.

분사 (현재 분사: ~ing 과거분사: p.p.)

분사에는 현재분사(~ing)와 과거분사(p.p.)가 있는데, 분사들이란 본질적으로 동사이자 형용사입니다.

즉, 분사란 동사로서 그 자체의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취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사란 형용사로서, 분사의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류)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분사는 능동적, 진행적 의미를 갖고, 과거분사는 수동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Fathers doing the housework love their children.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위 문장에서 본동사는 **love** 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동사 **do**는 뭔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현재분사인 **doing** 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물론, **doing** 이라는 현재 분사꼴 대신에 **to do** 의 부정사꼴로 바꿀 수도 있겠지요.)

위 문장에서 현재분사 **doing** 은 **동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인 **the housework** 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인 **Fathers**를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hers doing the housework** 전체가 마치 하나의 명사처럼 주어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Fathers doing the housework** 는 결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명사와 마찬가지로 “**명사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구에서 가장 핵심적 단어 (“**대장**”명사)는 **Fathers**입니다.

즉, **doing the housework** 부분은 대장인 **Fathers**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수식구**로서 형용사구에 불과합니다.

즉, 원래 위 문장은

Fathers love their children.

라는 문장이었는데, 주어이자 명사인 **Fathers**에 장식품인 **doing the housework** 를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The man **called** John **is** a teacher.

(존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남자는 선생님이다.)

위 문장에서 **called** 는 결코 본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 문장에서 본동사 형태는 이미 **is**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동사류인 **called**는 본동사 성격의 과거형 **called** 가 아니라, 형용사 노릇하는 **과거분사 called**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분사는 수동적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즉, 능동적으로 누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불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암튼, 과거분사인 **called** 는 **동사**로서 뒤에 있는 명사인 **John** 을 자신의 목적으로 취하고,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인 **man** 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아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예를 보면, 각각 능동적 의미와 수동적 의미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동적 의미란 주어가 무엇인가에 의해 어떤 행위나 피해를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 (능동적 의미)

wounded pride (상처받은 자존심) (수동적 의미)

참고: 동명사 vs. 현재분사 = ~ing

동명사나 현재분사나 모두 동사의 원형 + **~ing** 꼴로 그 형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사실 문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헷갈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동명사는 반드시 “명사” 노릇을 하는 것이므로, 명사가 나와야 할 위치, 즉, 주어, 목적어, 명사보어 및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올 것이고, 현재분사는 반드시 “형용사” 노릇을 하는 것이므로, 형용사가 있어야 할 자리,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자리에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사구문

위에서 배운 분사구들도 모두 분사구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종속절** 부분이 현재분사나 과거분사 꼴로 축약된 경우를 특히 분사구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속접속사 + S + V+ ... (종속절), S+V+ ... (주절)

↓

-ing(현재분사) 또는 -ed(과거분사) + ..., S+V+...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종속절의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는 능동태일 경우 현재분사로, 수동태일 때는 과거분사로 만듭니다

As I was sick, I went to bed. (아팠기 때문에 자러 갔다)



Being sick, I went to bed. (아팠기 때문에 자러 갔다)

(주의: 설령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되어 분사구문으로 바뀌어졌다고 할 지라도, 생략되기 전의 원래의 접속사와 주어를 유추해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결국 접속사가 생략되기 전의 문장이나 생략된 후의 문장의 해석은 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As the rat was seen by a cat, the rat ran away.



seen by a cat, the rat ran away.

(고양이에 의해 눈에 띄었을 때 그 쥐는 도망갔다.)

위 문장의 경우, 수동태 문장이고, 따라서 당연히 수동적 의미를 갖는 과거분사 형태만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수동태 문장의 **was** 는 단지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그것도 함께 생략합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주절에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After I had brushed my teeth, I went to bed.



Having brushed my teeth, I went to bed.

(양치질을 한 후에 나는 자러 갔다.)

위 문장을 보면, 현재완료 분사구문이 아니라, 과거완료 분사구문임을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면 주절의 시제가 **went** 로 과거이므로, 앞 부분 **having brushed** 는 원래 과거완료였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같이 완료분사구문은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더 빠를 때 사용합니다.(위 예문의 경우, 주절의 시제는 과거,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완료)

현재분사는 언제나 **원형동사**에 **~ing**를 붙이는 꼴이니, **have** 동사의 원형인 **have**에 **~ing** 를 붙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have** 동사의 과거형인 **had** 에 **~ing** 를 붙여 **hading** 으로 만들어 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이 과거완료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having brushed** 형태가 된 것입니다.

독립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란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의 분사구문을 말하며, 그런 경우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즉, 분사구문을 만들더라도 이제 종속절의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After all the guests had arrived, the host started the party.



All the guests having arrived, the host started the party. (모든 손님들이 도착을 완료한 후에, 주인은 파티를 시작했다.)

위 예문에서 보면, 접속사 **after**는 생략되어 사라졌고, 주어인 **all the guests** 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과거완료형 **had**는 **having** 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약간의 참고사항:

동사들에 따라 어떤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동명사만이 와야 한다거나, 어떤 동사들은 뒤에 반드시 부정사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카페 게시판에 올려둘 것이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그에 대한 것은 무수히 많으니 직접 찾아 보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동사 뒤에 동명사가 올 때와 **to** 부정사가 올 때 그 의미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약간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다.

참고: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

“실제적이고, 생생하거나 완성된 동작”(“**actual, vivid or fulfilled action**”)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동명사**”를 사용하고, 목적, 이유 등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to 부정사**를 사용한다는데, 글썬요, 솔직히 그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을 보면, 그런ニュ앙스를 약간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동명사를 언제 사용하고, 부정사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인 우리가 그런 문제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그저 아래 문장에서와 같이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약간의 경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I stopped smoking.

(동명사: 나는 담배피우는 것을 그만두었다.)

I stopped to smoke.

(부정사: 나는 담배 피우기 위해 멈추었다)

아래 예문들에서 동명사를 사용한 예문의 의미는 실제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며 농구를 해본다는 의미이고, **to** 부정사를 사용한 예문의 경우는 그 농구팀의 대표가 되어 활동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Playing basketball takes up too much of her time.

(농구를 하는 것은 그녀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

To play basketball for UConn is her favorite fantasy.

(Uconn 팀의 농구대표로 뛰어보는 것이 그녀가 즐겨하는 상상이다.)

Her favorite fantasy is to play basketball for Uconn.

(그녀가 즐겨하는 상상은 UConn팀 농구대표가 되는 것이다.)

Her favorite fantasy is playing basketball for UConn.

(그녀가 즐겨하는 상상은 Uconn 팀 농구대표로 경기를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5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어로 (**원형**)부정사가 오는 경우와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그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I heard John sing. (원형 부정사)

(나는 존이 노래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어보았다.)

I heard John singing. (현재분사)

(나는 존이 노래하고 있는 중일 때 들었다. 즉, 그가 노래하는 것 전부를 듣지는 못했다.)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노릇

전치사 뒤에는 거의 항상 “명사(류)”가 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뒤에 있는 **~ing** 끝은 형용사 노릇을 하는 현재분사가 아니라, 모두 명사노릇을 하는 “동명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동명사는 전치사 뒤에 와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he thanked her coach for helping her to deal with the pressure. (그녀가 그 압력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준데 대해 그녀는 코치에게 감사했다.)

주의: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대개 동명사(**~ing**)가 오는데, 아주 예외적인 전치사 두 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의 **except**와 **but** 이라는 전치사들이다. 이 전치사들 뒤에는 동명사가 아니라, 반드시 **to 부정사**가 온다.

The committee had no choice except to elect him chairperson. (위원회는 그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What is left for us but to pack up our belongings and leave? (우리의 소지품을 꾸러서 떠나는 길 외에 달리 우리에게 남겨진 방법은 무엇인가?)

위 예문들에서 전치사 뒤에 오는 **to** 부정사들은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겠지요. 왜냐면 전치사 뒤에는 언제나 명사(류)만 와야 하니까요.

동명사: 소유격과 더불어 사용

동명사는 명사노릇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격과 더불어 사용될 수도 있겠군요. **my book** 처럼 말입니다.

"I can't stand him singing in the shower."

(나는 그가 샤워 중에 노래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참을 수 없는 이 유가 **he** 일 때)

"I can't stand his singing in the shower"

(나는 그가 샤워 중에 노래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참을 수 없는 이 유가 **singing** 일 때)

12. 관계사(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생성과정:

The elephant loved **the mouse.** (1)

The mouse was very beautiful. (2)

1)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려면 두 문장에 는 반드시 공통적인 명사(류)(=선행사)가 존재해야만 한다. 위 문장들 에 공통적인 명사는 **the mouse** 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 그 두 공통적 명사 중 어느 것이든 하나를 골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that**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1)번 문장의 목적어인 **the mouse** 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 **that**으로 대체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입니다.

The elephant loved (that). (1-1)

주의: 위 제거된 명사 **the mouse** 대신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that** 뿐만 아니라, 적당한 다른 관계대명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의 격"은 제거된 명사의 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위 예에서 제거된 명사 **the mouse**는 원래의 (1)번 문장에서 목적격이었으므로,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 관계대명사 **that**도 목적격이어야만 합니다.

3) (1-1) 문장의 괄호안에 있던 관계대명사 that을 꺼내 그 문장의 맨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that the elephant loved (). (1-2)

이제 (1-2) 문장을 (2)번 문장의 공통적 명사 바로 뒤에 가져다 붙이면 관계대명사 문장이 다음과 같이 완성됩니다.

The mouse **that** **the elephant loved** () **was very beautiful.** (2-1)

이제 위 문장에서 불필요한 괄호 등을 모두 제거하면 아래와 같은 완성된 관계대명사 문장이 됩니다.

The mouse **that the elephant loved** **was very beautiful.**

위 문장에서 보듯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다른 문장의 공통적 명사 **the mouse** 는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대명사 문장이란 공통적 명사(류)를 가진 두 문장 중 하나의 문장에서 공통적 명사 하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로 대체하여 **다른 나머지 문장에 삽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 문장에서 밑줄친 부분인 관계절은 다른 문장 속에 삽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대명사**”란 두 문장 속의 공통적 명사들 중에 하나를 대신하는 “**대명사**”로서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므로 그것 자체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관계대명사란 선행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로서 단지 두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만 할 뿐입니다.

맨위 두 문장들인 **(1), (2)** 번 문장들 중 어느 문장에서 공통적 명사인 **the mouse** 를 제거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The mouse that the elephant loved was very beautiful.
(3) (그 코끼리가 사랑했던 그 생쥐는 매우 아름다웠다.)

The elephant loved the mouse that was very beautiful.
(4) (그 코끼리는 매우 아름다웠던 생쥐를 사랑했다.)

위 **(3),(4)** 번 문장 해석의 뉴앙스를 느끼실 겁니다. 즉, 어느 뉴앙스를 표현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두 문장 중 어느 문장의 공통적 명사를 생략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참고: (3)번 문장의 관계대명사 **that**는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도 그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The mouse the elephant loved was very beautiful.

그러나 (4)번 문장의 관계대명사 **that**는 주격이므로 생략될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관계대명사 문장이란 사실은 매우 쉬운 문장구조이지요?

매우 중요: 관계대명사 여부 확인 방법

어떤 절이 관계대명사절인지 아닌지, 또는 문장내의 **that** 등이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만일 그 관계사를 제거했다고 가정할 때** 그 관계대명사가 있던 관계절 안에 주어나 목적어 등 문법적으로 무엇인가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만들어지면서, 공통적 명사 하나가 제거되고, 그 대신 관계대명사로 대체됨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제거되면 관계절 부분의 문장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도 일종의 "대명사"이므로 결국 **명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어떤 공통적 명사가 생략되고 관계대명사로 대체될 수 있는 문장내 위치들은 **주어, 목적어, 명사보어, 전치사의 목적어**일 것입니다. 즉, 관계사를 제거했을 때 바로 그것들 중 하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 아래 문장의 **that**가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접속사인지 또는 지시대명사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문장에서 일단 **that**를 제거한 다음 문장이 성립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Elephants that love mice are very unusual. (1)

(쥐들을 사랑하는 코끼리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위 예문에서 만일 **that**를 제거한다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될 것입니다.

Elephants () **love mice** **are** very unusual. (2)

that가 제거된 위 문장이 문법적으로 성립되나요?

(1)번 문장의 **that**는 **love**의 주어 노릇을 하는 주격이지요. 그래서 그런 주어 노릇을 하는 **that**가 제거되었으니, 이제 밑줄친 관계절의 동사 **love**의 주어가 없음을 알 수 있군요.(=주어 부족)

The mouse **that the elephant loved** **was** very beautiful.
(3)

The mouse **the elephant loved** () **was** very beautiful.
(4)

(3)번 문장의 **that**가 만일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that**가 제거되었다면 (4)번 문장처럼 되어 밑줄친 관계절에서 동사 **loved**의 목적어가 부족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목적어 부족)

In the middle of the jungle **was** a river **that all the animals went to every day.** (5)

In the middle of the jungle **was** a river **all the animals went to () every day.** (6)

만일 (5)번 문장의 **that**가 제거되어 (6)번 문장이 된다면, (6)번 문장의 밑줄친 관계절에서는 문법적으로 뭐가 부족한가요?

네,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부족하군요. 즉,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6)번의 괄호안에 원래 공통명사이자, 선행사인 **a river** 가 있었던 자리였지요.(=전치사의 목적어 부족)

주의: 위 문장에서 설마하니 전치사 **to** 가 **every day** 와 묶인 전치사구 **to every day** 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위 문장에서 **every day**의 형태는 분명히 명사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와만 결합하는 전치사 **to**와 결합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위 문장을 읽을 때에도 **to** 와 **every day** 사이를 끊어 읽어야만 합니다.(물론, 대단히 짧은 순간이어서 사실상 구분이 거의 안되겠지만.)

The doctor **that I was hoping to see** **wasn't** on duty.
(7)

(내가 만나보기를 원했던 그 의사는 비번이었다.)

(참고: 위 문장의 경우 **that** 대신 **whom, who**로 대체할 수 있고, 또는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이유는 **to** 부정사인 **to see**의 목적격)

The doctor **I was hoping to see ()** **wasn't** on duty.
(8)

만일 (7)번 문장의 **that**을 생략한다면, (8)문장이 되는데, (8)번 문장의 관계절, 즉, 밑줄친 부분에서는 부정사 **to see**의 목적어가 부족하다. (= **to** 부정사의 목적어 부족)

주의: 이미 눈치챈 사람들도 있겠지만, 위 관계대명사 문장들을 보면 본동사들이 언제나 두 개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면 관계대명사 문장이란 원래 두 개의 문장이 관계대명사를 연결고리로 하여 하나로 합쳐진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동사들이 서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흔히 **본동사 두 개가 연이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틀림 없이 관계대명사가 그 앞 어딘가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 vs. 계속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란 위에서 지금까지 본 관계사 문장들과 같이 선행사 뒤에 **кома**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계속적 용법에서는 관계절의 앞뒤에 반드시 **кома**가 있습니다.

아래 예문들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My friend John, who went to the same school as me, has just written a best-selling novel.

내 친구 존은, 나와 학교 동창인데, 지금 막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다.

(여기서의 관계대명사 **who** 의 의미 = **and he**)

He gave me the letter, which I read immediately.

그는 나에게 편지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즉시 읽었다.

(which = and it)

주의: 한정적 용법은 관계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도록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 부터 계속 이어서 해석합니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의미상의 차이:

I teach clever students. (1)

(나는 영리한 학생들을 가르친다.)

I teach students who are clever. (2)

(나는 영리한 학생들을 가르친다)

(1)번 문장의 **clever** 는 명사인 **students**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한정적 용법인 (2)번 문장의 관계절인 **who are clever** 도 명사인 **students** 를 수식하므로 **형용사절**입니다. 결국, 한정적 용법의 관계절은 문법적으로 정확히 형용사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한정적 용법의 관계절이란 보통의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수식해주는 명사(=선행사)의 성질 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문장의 예에서는 무수한 학생들 중 **clever** 한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반해 계속적 용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단지 선행사에 대한 부수적 정보만을 덧붙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절 내용은 다만 선행사에 대한 부수적 정보로서 전체 문장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그 부분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 용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들

사실 나도 아래 설명하는 내용들은 별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보다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첨부해 아래 내용을 첨부해 드립니다. 기타, 관계대명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시중의 참고서를 보면 될 것입니다.

1. Who 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선행사일 때, 그리고 **which** 는 '사물'이 선행사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집단이나 사람의 지위, 직업, 성격 등을 선행사로 할 때, 또는 앞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때에는 흔히 **which** 를 사용합니다

His mother had ten children, of which he was the oldest. (사람의 집단인 **ten children**이 선행사)

(그의 어머니는 **1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그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였다.)

I go there when I have time, which is not often.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

(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가는데, 그것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2. 관계대명사 that: 흔히 **who** 나 **which** 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at**는 항상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the last, the greatest, the only, the same, the very, each, every, both, all, none, any, nothing** 등 선행사에 한정적 의미가 강한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경우, 또는 **who** 가 선행사인 경우, 또는 사람+사물이 선행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that**를 사용한다.

I told the news to the first man that I met.

(나는 그 뉴스를 내가 만난 첫번째 사람에게 말해주었다)

Who that knows him will believe him?

(그를 아는 누가 도대체 그를 믿으려 하겠는가?)

He made a speech on the man and things that he had seen abroad.

(그는 그가 해외에서 보았던 사람과 사물들에 대해 연설을 했다.)

관계대명사 **that** 를 사용할 경우, **that** 앞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습니다. 만일 전치사가 있을 경우 전치사는 문장 뒤로 보내야 합니다.

It is not you that I am angry with.

(즉, 전치사가 관계사 앞으로 온 **with that** 은 불가)

(내가 화가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3. 다른 관계대명사절들은 모두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지만, 그러나 관계대명사 **what** 은 선행사를 그 자체내에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즉, 관계대명사 **what = the thing which** 와 같은 것으로서 선행사가 특정되지 않아 불분명할 때 주로 **what** 가 쓰입니다.

Nobody outside this room must ever know what we have discussed. (이 방 밖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우리가 논의했던 것에 대해 절대로 알 수 없음에 틀림없다.)

위 문장의 관계대명사절인 **what** 절은 동사 **know** 의 목적어 노릇을 하는 목적절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이 만드는 절은 **명사절 (=명사류)**이므로,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으며, 명사보어도 될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what** 관계대명사절은 아래 예문과 같이 흔히 전치사의 목적절로 사용됩니다.

My Mom always comments on what I am wearing.

(나의 엄마는 내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 언제나 잔소리를 한다.)

4.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흔히 **생략**된다. 특히,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경우에는 그 전치사는 해당 관계절 문장의 뒤로 가야만 합니다. 아래 예문에서 전치사 **in**이 관계절의 뒤로 가 있군요.

The jungle (that) the elephant lived in was full of strange and unusual animals.

(그 코끼리가 살았던 정글은 이상하고 기이한 동물들로 가득했다.)

5. 선행사는 동시에 두 관계절에 의해 이중 한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사와 관계절이 서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that you have not?

(너가 원하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이라도 있는가?)

The man arrived who we had called earlier.

(우리가 전에 전화했던 그 남자가 도착했다.)

위 두번째 문장의 경우 원래 문법대로라면 동사 **arrived** 가 문장의 맨 뒤에 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면 도리어 문장의 스타일이 이상해지므로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arrived**가 단 한 단어에 불과하므로)

6. 복합관계대명사: **whoever(누구든지), whatever(무엇이든지)**
 등 = 일반 관계대명사와 용법은 전혀 같다. 다만, 이런 경우 이 복합관계대명사들은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을 이끕니다.

Give it to whoever wants it.

(누구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whoever = any one who** 와 같다. 즉, **whoever**는 동사 **wants**의 주어이며, 전치사 **to**의 목적어는 **whoever** 이하 전체로서 명사절입니다.)

7. 유사 관계대명사: as, but, than

위 단어들이 정식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형용사절을 이끌며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e uses the same book as you do.

(그는 너가 가진 책과 똑같은 종류의 책을 가지고 있다.)

He came home drunk, as is often the case.

(그는 취해서 집에 왔는데, 그것은 흔히 있는 경우이다.)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

There was no one but did his best.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용법의 **but**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주로 사용)

The next war will be more cruel than can be imagined.

(다음 전쟁은 상상될 수 있는 것 보다 더 잔인해질 것이다.)

(선행사는 **war** 로서 관계사 **than** 과 멀리 떨어져 있다.)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와 관계형용사를 만드는 방법과 용법은 관계대명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오직 생략되는 부분의 품사가 관계대명사의 경우 명사(류)였는데, 관계부사의 경우 부사(구), 관계형용사의 경우 형용사(구)라는 것 차이 뿐입니다.

아래 예는 **관계부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This is **the place.** (1)

He lives **in the place.** (2)

He lives (**where**).

where he lives. (2-2)

This is **the place where** he lives. (3)

= This is **the place in which** he lives. (3-1)

(여기가 그가 사는 곳이다.)

즉, 우선 (1), (2) 두 문장에 공통의 명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에 **부사 구인 in the place** 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장소의 **관계부사 where** 를 대체한 다음, 그 관계부사를 맨 앞으로 가져가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문장의 선행사 **the place** 뒤에 붙입니다. (**where = in which** 와 같다. 즉, 위 (1), (2) 문장들을 (3-1)처럼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관계형용사** 문장을 만드는 예입니다.

아래 예문에서 **Susan**은 결국 **her** 와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단어가 공통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I have just met Susan. (1)

Her husband works in London. (2)

I have just met Susan, whose husband works in London. (3)

(나는 수잔을 방금 만났는데, 그녀의 남편은 런던에서 일한다.)

(2)문장에서 소유격 **her** 는 명사 **husband** 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대신하는 **whose** 는 소유관계대명사 라고도 하는데, 결국 명사인 **husband** 를 수식해주므로 **관계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은 **where, why, how, when** 등의 의문부사들입니다. 그리고 **which, who** 등 모든 의문대명사들은 관계대명사 및 관계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아래 예문에서처럼 **that**가 **관계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I remember the day that he came.

(**that = when = on which = 관계부사**)

(나는 그가 왔던 날짜를 기억하고 있다.)

주의: 관계부사절들이 언제나 형용사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절**이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따라서 문장에 따라 그 해석을 적당히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행사와 관계부사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짝을 이루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the way - how (방법)

the reason - why (이유)

the time - when (때)

the place - where (장소)

그런데 위와 같이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은 오히려 드문 편이고, 선행사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관계부사가 생략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형용사절로 이용되기 보다는 “**명사절**”로 이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13. 잡동사니 (Miscellaneous)

앞으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은 영문법에 있어서 별로 핵심적 내용들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래 소개하는 내용들을 모두 암기하려고 한다면, 또는 깊이 이해하려고 억지로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그런 내용들도 있나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며 살펴보면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걸 전혀 몰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부딪히는 문장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저 기억해내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래 나오는 내용들을 좀더 깊이 알고자 너무 세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1. Expletives (=empty words 허사)

허사란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는 단어를 그저 영문법적 형식에 맞추기 위해 끼워넣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There + be + 주어** 형태의 문장에서의 **there** 입니다.

이런 문장에서의 **there**에는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장형대상 맨 앞에 주어 비슷한 것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끼워넣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there** 를 끼워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때의 **there**를 시중 문법서적에서는 흔히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there** 에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으니,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There are two birds in the room.

(두 마리의 새들이 방에 있다.)

birds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복수형인 **are**가 된 것이며, 이런 형태의 문장(**there+ be+주어**) 에서 **be** 동사는 언제나 “존재하다, 있다”는 의미의 **1**형식 자동사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There has been a rug on that floor for two months.

(그 마루 위에는 깔개가 두 달 동안이나 있었다.)

There appeared/seemed to be some difficulty in fixing a date for the meeting.

(회의 날짜를 확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위 문장의 경우, **be** 동사 부분에 약간의 변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be** 동사 앞에 **appear** 나 **seem** 같은 2형식 동사들이 결합하여 약간 다른 의미가 되도록 변화를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re once was/ lived a poor widow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옛날에 아름다운 딸을 가진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살았다)

위 예문에서는 **there** 문장이 언제나 **be** 동사만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live** 같은 동사도 올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역시 **there** 는 아무런 실제적 의미도 없는 허사일 뿐입니다. 즉, 그런 경우의 **there** 를 “거기에”라고 부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비인칭 주어(가주어) it = 허사

허사로 흔히 사용되는 또 다른 예는 바로 소위 “비인칭 주어” 또는 “가주어”라고 흔히 불리는 **it** 입니다.

It is raining.

위 문장에서 **rain**이라는 자동사는 사실 주어가 필요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이미 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문법적 형식상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주어로서 **it** 를 끼워넣은 것입니다. 즉, 이 경우 **it** 는 아무런 실제적 의미도 없다는 말입니다

It is fun to wash windows.

(창문을 닦는 것은 재미있다.)

위 문장이 바로 소위 **It(가주어)~ to~(진주어)** 용법입니다.

It is good for him to marry her.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좋다.)

위 문장은 시중의 문법책들에서 소위 말하는 **It(가주어)~ for~(의미상 주어) to~(진주어)** 용법입니다.

It is true that we were once good friends.

(우리가 한때 좋은 친구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위 문장이 소위 말하는 **it(가주어)~ that~(진주어)** 용법입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that = 허사

I hope (that) you like the gift.

(나는 너가 그 선물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목적절을 이끄는 **that**는 허사로서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으므로 흔히 생략됩니다.

주절을 이끄는 that = 허사

That he is honest is clear.

(그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명사절을 이끄는 whether = 허사

I doubt whether it'll work.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런지(효과가 있을런지) 의아스럽다.)

목적격 보어를 유도하는 as =허사

They elected him as their president.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위 문장은 좀 특이한 5형식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목적격 보어 부분에 명사(류)아니라, 전치사 as를 가진 전치사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as가 생략되어도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전혀 상관없는 문장일 것 같습니다.

예) **We elected him chairman of the board.**

(우리는 그를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2. 접속사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연결하는 양쪽을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시켜주는 대등접속사, 한쪽은 종속절 다른 쪽은 주절이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종속접속사, 그리고 항상 쌍으로 되어 단어들을 연결해주는 상관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등접속사들: **and, or, but, nor, yet** 등

She tried and succeeded.

(그녀는 시도했고 그리고 성공했다.)

종속접속사들 : **because, since, if, while, although, when, after, as** 등 (종속접속사절은 모두 주절을 수식해주는 부사절입니다.)

After the train left, we went home.

(기차가 떠난 후에, 우리는 집에 갔다.)

상관접속사들 : **both~and, either~or, hardly~when, if~then, not only~ but also** 등 짝으로 나오는 것들

She is not only clever, but also beautiful.

(그녀는 영리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다.)

참고: 위 상관접속사 예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관접속사들 사이에는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의 단어나 구, 절들이 나오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예문에서는 형용사인 **clever** 와 **beautiful** 이 상관접속사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군요. (즉, 아래에서 곧 설명하게 될 동격구조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복합접속사들 : **as far as, as long as, given that, on condition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now that, except that, so that, even though, in case, even if**

You can make the change if you want, provided (that) the change makes sense.

(그런 변경이 의미가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너가 원한다면, 너는 그런 변경을 할 수도 있다.)

3. Parallel Structure (동격구조)

동격구조(병렬구조)란 단어, 구, 절 등이 어떤 접속사로 연결될 때, 그 접속사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모두 문법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의 접속사 예문들에서 대등접속사 **and** 와 상관접속사 **not only~ but also** 의 양쪽이 모두 같은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쪽이 동사이면 접속사의 다른 쪽도 동사이어야 하고, 한쪽이 형용사이면 접속사의 다른 쪽도 형용사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문장형식들입니다.

"It is by logic that we prove, but by intuition that we discover." - Jules Henri Poincaré (1854-1912)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논리를 통해서이지만, 그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Humanity has advanced, when it has advanced, **not because it has been sober, responsible, and cautious, **but because** it has been playful, rebellious, and immature.**

(인간성이 진화해왔는데, 그러나 인간성이 도대체 언제 진화해왔는가 하면, 그것은 인간들의 정신이 말짱하거나 책임감있거나 사려깊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성이 장난끼있고, 반동적이며, 덜 완전했었기 때문이었다.)

위 문장에서는 상관접속사 **not because~ but because** 의 양쪽에 똑같은 문법적 구조의 문장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Crafty men condemn studies, simple men admire them, **and wise men use them.**

(육체적 힘만 센 자들은 학문을 비난하고, 단순무식한 자들은 학문을 숭상하며, 현명한 자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위 문장에서도 대등접속사 **and** 양쪽에 똑같은 문법적 구조의 문장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jectives should be paralleled by adjectives, nouns by nouns, dependent clauses by dependent clauses, and so on.

(형용사들은 형용사들에 의해 동격구조를 이루어야 하고, 명사들은 명사들로, 종속절은 종속절로 등등으로 동격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위 문장에서도逗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만 **should be paralleled** 부분이 공통적으로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예문들의 맨 위 문장에서처럼, 문법적 형태상으로 서로 짝이 맞지 않게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장들처럼 서로 짝이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Faulty**=틀린 문장, **Correct**=옳은 문장)

Faulty: The frustrated customer wanted **to exchange** the article, **to obtain** a refund, or **she wanted to speak** to the manager. (빨간색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Correct: The frustrated customer wanted **to exchange** the article, **to obtain** a refund, or **to speak** to the manager.

Correct: The frustrated customer wanted **to exchange** the article, **obtain** a refund, or **speak** to the manager.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소비자는 그 상품을 교환하고, 돈을 환불 받거나 아니면, 가게 지배인과 얘기를 하고 싶어했다.)

(굵게 표시된 부분: 모두 부정사 구조로 고쳤습니다. 부정사 구조의 동격구조 만드는 방법에는 위와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모두에 **to**를 사용하는 방법과 한번만 **to**를 사용하는 방법)

동격구조(병렬구조) 문제는 이쯤 해두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바보영문법 카페에 소개해 둔 관련 링크를 찾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글검색으로 간단히 그런 사이트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4. Linking Adverb (연계부사, conjunctive adverbs)

연계부사들은 부사이지만, 접속사가 아닌데도 마치 접속사처럼 착각하기 쉬운 부사들입니다. 아래 부사들이 바로 소위 연계부사들입니다.

accordingly, yet, also, **as a result**, besides, further, furthermore, however, **in fact**, meanwhile, moreover, **nevertheless**, nonetheless, **on the other hand**, otherwise, still, then, **therefore**, thus, first, second, third, finally, lastly, for one thing, to begin with, next, similarly, by the same token, likewise, in sum, in conclusion, to conclude, all in all, overall, to summarize, (이하는 동격연계부사들)**which is to say, in other words, that is,** (이하는 결과의 연계부사들) **consequently, as a result, hence, so** (암기할 필요 없음)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위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저 대충 그런 것들이 있나보다 할 뿐입니다.)

연계부사는 대개 우리가 이미 말한 내용과 곧 말하게 될 내용과의 논리적 연결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연계부사가 접속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접속사는 **하나의 문장내**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데 비하여, 연계부사는 대개의 경우 **완전히 독립된 다른 문장**에서 앞문장이나 뒷문장과의 논리적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입니다.

연계부사들은 문장의 앞, 중간, 뒤 등 어디에든 올 수 있고, 언제나 콤마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래 예문에서 연계부사는,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음을 눈여겨 보아 주세요. 그리고 연계부사의 문장내에서의 위치를 잘 살펴 보세요. 문장의 앞, 중간, 뒤에 올 수 있습니다.

His visit was unexpected.

Nevertheless, I was pleased to see him.

(그의 방문은 뜻밖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보게 되어 기뻐다.)

His visit was unexpected.

I was, nevertheless, pleased to see him.

His visit was unexpected.

I was pleased to see him, nevertheless.

위 세 가지 문장의 의미는 모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연계부사의 경우 문장내 앞, 중간, 뒤 어디에도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위 문장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Appositives (동격어, 동격구, 동격절)

동격어, 동격구, 동격절이란 문장내 어떤 명사(류)의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류)와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다만 그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 구, 절을 말합니다.

예) 아래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앞에 있는 명사인 **insect**와 동격어 부분입니다.

The **insect**, a **cockroach**, is crawling across the kitchen table.

The **insect**, a **large cockroach**, is crawling across the kitchen table.

The **insect**, a **large cockroach with hairy legs**, is crawling across the kitchen table.

The **insect**, a large, hairy-legged cockroach that has spied my bowl of oatmeal, is crawling across the kitchen table.

(그 곤충, 즉, 내 오트밀죽 그릇을 기웃거렸던 커다랗고 털이 많은 다리를 가진 바퀴벌레가 부엌 식탁을 가로질러 기어가고 있는 중이다.)

예)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 단어와 동격 부분입니다.

A hot-tempered tennis player, **Robbie** charged the umpire and tried to crack the poor man's skull with a racket.

(불같은 성격은 가진 테니스 선수인 로비는 심판을 향해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라켓으로 후려갈기려고 시도했다.)

Robbie, a hot-tempered tennis player, charged the umpire and tried to crack the poor man's skull with a racket.

Your friend **Bill** is in trouble.

(너의 친구 빌은 곤경에 처해 있다.)

동격어의 한정적 용법과 비한정적 용법:

My sister Jane studies in England. (1) - 한정적

My sister, Jane, studies in England. (2) - 비한정적

(1), (2)번의 차이는 오직 동격어 앞뒤에 콤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그런데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1)번의 의미는 여러명의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들 중 오직 제인만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비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2)번 문장의 의미는 제인이라는 이름의 오직 한명의 여동생이 있을 뿐인데, 그 여동생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2)번 문장의 경우 **Jane**을 생략해도 그녀가 누구인지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를 비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번의 경우 **Jane**을 생략하면 여러명의 여동생들 중 누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동격의 of 와 that

여기서 “동격”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소위 동격의 **of** 와 동격의 **that** 문제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전치사 **of** 의 의미는 한국어로 대개 “~의”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king of England** = 영국의 왕 하는식입니다. 또는 **the middle of the jungle** = 정글의 가운데 등입니다. 즉, 전치사 **of** 이하가 전치사 **of** 와 함께 전치사구를 이루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미리엄 웹스터 영영사전에서 **of** 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치사 **of** 의 의미와 용법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of** 의 의미를 언제나 우리말로 “~의”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려고 하다간 자칫 도무지 말이 안되는 경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전치사 **of** 의 의미들 중에는 우리말로 “~의”로 해석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미리엄 웹스터에서 8번 항목 **a**의 경우, **the city of Rome** 은 “도시들 중에 하나인 로마시(= 로마시라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8번 항목 **b**의 경우가 바로 소위 “동격의 **of**”라는 부분인데, “**that fool of husband**”는 “남편의 그 바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of**의 양쪽에 있는 명사가 동격, 즉, **that fool = husband**로서 같은 경우이므로, “남편이라는 그 바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 항목 **a**의 경우도, **of**를 “~의”라고 해석해서는 안되는 경우입니다. 만일 그런 경우에 “~의”라고 해석한다면 “**love of nature**”는 “자연의 사랑”이 되어 버릴 것인데, 그런 해석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 의미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8.a - the city of Rome

8.b - that fool of husband

9.a - love of nature

(출처: 미리엄 웹스터 사전)

아래 문장의 **that**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my belief**에 대한 “동격절”(=명사절)을 이끄는 **that**라고 합니다.

즉, **my belief**의 구체적 내용이 바로 밑줄쳐진 **that**절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의 **that**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는 “허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My belief that English grammar is fascinating lies behind my career.

(영문법은 환상적이라는 나의 신념이 내 경력의 뒷배경이다.)

그러한 **that** 동격절은 흔히 앞에 **idea, fact** 등의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idea that~** 또는 **fact that~** 등이다.)

At birth, we have no idea that we are separate beings, no idea even that we are he or she.

(출생시에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존재라거나 또는 심지어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모른다.)

그러나 **that** 앞에 **idea** 라는 명사가 온다고 해서, 그 때의 **that**가 언제나 동격절을 이끄는 **that**는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문장에서 **that** 는 관계대명사입니다.

We can purposely expose ourselves to groups and ideas that we prefer.

(우리는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들이나 이념들에 우리 자신을 고의적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다.)

6. Linking verb (연계동사, Copular)

연계동사란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2형식** 동사를 말합니다. 즉, 이 동사들 뒤에는 반드시 주격보어가 와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2형식** 문장을 만드는 **be** 동사입니다. 연계동사 중 **be** 동사는 특히 아무런 실제적 의미가 없이 그저 문법적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be** 동사는 흔히 생략가능합니다.

물론, 연계동사에는 **be** 동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become, seem, prove, appear, look, stay** 등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연계동사적으로 기능할 때에는 모두 **2형식** 동사들로 사용되는 경우들입니다.

The answer is that we don't want to go to the party.

(그 답은 우리가 그 파티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He became a beggar.

(그는 거지가 되었다.)

She seems (to be) all right.

(그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인다.)

He proved (to be) a good husband.

(그는 좋은 남편으로 판명되었다.)

She appears (to be) exhausted.

(그녀는 지친 것으로 보인다.)

It seems like she does not want to go to school.

(그녀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Your house looks very clean.

(너의 집은 매우 깨끗해 보인다.)

She stayed calm.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조용히 있었다.)

기타 연계동사들: 중요한 점은 아래 동사들이 모두 **2형식** 동사라는 점입니다. 즉, 그 동사들은 뒤에 명사보어나 형용사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feel, lie, remain, smell, sound, taste, get, grow, fall, run, turn

7. Cleft Sentence(틈새 문장)

주어와 동사 등 문법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틈새가 벌어져 있는 문장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관계대명사 문장들은 주어부분과 본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흔히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아내는데 있어 어려워 하곤 합니다.

아래 예문들에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음을 주목해 보세요.

The thing that impresses me more than anything else is your generosity.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감동시킨 것은 당신의 관대함이다.)

위 문장에서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부분은 **the thing**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입니다.

What we now need are actions rather than words.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말 보다는 오히려 행동이다.)

위 문장에서 **what** 는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a new coat.

(내가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모든 것은 새 코트이다.)

위 문장에서 **all** 뒤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The day the Second World War ended in Europe **was** 7 May 1945.

(유럽에서 2차대전이 끝난 날은 1945년 5월 7일이었다)

위 문장에서 **day** 뒤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Mary is **the person** in this organization **who** works harder than anybody else.

(Mary는 이 조직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위 문장에서는, 선행사 **the person** 이 관계대명사 **who** 의 바로 앞에 있지 않고 훨씬 앞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It(가주어)~ for(의미상 주어)~ to~ (진주어): 이런 형태도 전형적인 틸새 문장의 일종입니다.

이 용법의 경우, **for**대신 **of**가 쓰이는 약간의 형용사들이 있으니 주의할 것. 즉, 약간의 형용사들에 있어서는 **It~ of~ to~** 가 된다는 말입니다.

It is good for him to marry her.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좋다.)

It is kind of you to come to see me.

(당신이 나를 보러 온 것은 친절하다.)

위 문장에서와 같이 전치사 **for** 대신에 **of** 를 사용해야만 하는 형용사들이 약간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Kind, nice, clever, generous, wrong, stupid, right, fine, hateful, cruel 등이다.

그리고 진주어 **to** 부정사 대신에 접속사나 관계대명사 **that, who**, 또는 관계부사 **when** 등이 오거나 또는 동명사가 오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즉, **It~that(who, when)~** 구조가 되거나 또는 **It~~ing~** 구조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기타, 아래와 같이 좀 이상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Joey for whom we are looking.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Joey**다.)

8. 강조용법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형식은 **It is~** 뒤, 또는 **that** 등의 앞에 나오는 단어부분을 강조(**to focus**)하기 위한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이 무엇인지 아래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You stole the money. (강조 아님)

(너는 그 돈을 훔쳤다.)

It was you who stole the money, not him. (강조문)

(그 돈을 훔친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너였다.)

I broke the vase. (강조 아님)

(나는 그 꽃병을 깨뜨렸다.)

It was me who broke the vase. (강조문)

(그 꽃병을 깨뜨린 것은 바로 나였다.)

아래와 같은 비강조문(=보통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My brother bought his new car from our next-door neighbour last Saturday.

(나의 형은 지난 토요일에 바로 이웃집으로부터 그의 새차를 샀다.)

위 문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문장들이 될 수 있습니다.

It was my brother who bought his new car from our neighbour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 바로 이웃으로부터 새차를 산 것은 바로 나의 형이었다.)

It was last Saturday when my brother bought his new car from our neighbour.

(내 형이 옆집에서 새차를 산 것은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다.)

It was a new car that my brother bought from our neighbour last Saturday.

(내 형이 지난 토요일 옆집으로부터 산 것은 바로 새차였다.)

It was our next-door neighbour that my brother bought his new car from last Saturday.

(내 형이 지난 토요일에 새차를 산 것은 바로 이웃집으로부터 였다.)

위 문장의 경우 **that**은 결국 관계대명사임을 눈여겨 볼 것.

9. Quantifier(수량사), Qualifier(품질사)

전치사 **of** 의 의미는 우리말로 흔히 “~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치사 **of**가 “대장”이 되는 전치사구를 이끌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구(=형용사구나 부사구)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the middle of the jungle** 또는 **king of England** 등에서처럼 **of** 전치사구가 앞의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그런데 동격의 **of**에서는 그런 수식관계가 아니라, **of**의 양쪽의 의미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that fool of husband**의 경우, **of**는 결코 **husband**와 강하게 결합되지 않고, 다만 양쪽 명사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연결시켜 줄 뿐입니다. 즉, **that fool = husband**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 **of**의 기능 중에는 아예 앞쪽에 있는 명사와 강하게 결합하여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수량사, 품질사라고 하는 것들인데, 말하자면 수식어입니다. 즉, 형용사이거나 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의 일부는 형용사 노릇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 때 **of**와 더불어 특이한 문법적 행동을 보이는 것들을 나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량사와 품질사들 중 형용사 노릇하는 것만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과 같습니다.

Kenyon applied to three good colleges. (1)

(케논은 세개의 좋은 대학들에 지원했다.)

(1)번 문장에서 **three** 나 **good** 이나 모두 뒤의 명사 **colleges** 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들입니다. 그런데 **three**는 도대체 몇개인지 그 수량을 알려주는 수량형용사이고, 그 뒤의 **good**은 좋은 대학인지, 나쁜 대학들인지를 알려주는 품질형용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Melrose Place has a great deal of trendy shops and restaurants. (2)

(멜로즈 플레이스 거리는 매우 많은 최신 유행의 가게들과 음식점들이 있다.)

(2)번 문장에서도 앞에 빨간색칠 된 부분이 수량형용사이고, 뒤에 파란색칠 된 부분이 품질형용사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 아래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a great deal of**와 같은 것들입니다.

of의 흔히 쓰이는 용법에 의하면, 원래 뒤에 나오는 명사인 **shops**와 결합하여 **of trendy shops**라는 전치사구이자, 앞의 명사인 **deal**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예문에서 보다시피, 전치사 **of**는 도리어 앞에 있는 명사 **deal**과 결합하여, 하나의 형용사구가 되어 **a great deal of**(매우 많은)가 이제는 뒤의 명사인 **shop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즉, 전치사 **of**의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에서 뒤쪽으로 수식해주도록 해석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매우 많은 가게들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수량형용사들과 품질형용사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a little/little/very little**
(**a little**=약간의, **little**=거의 없는)
- **a bit (of)**=약간의
- **a great deal of** =많은
- **a large amount of** =많은 량의
- **a large quantity of** =많은 수량의

- **a lot of** = 많은
- **lots of** = 많은
- **plenty of** = 풍부한

- **a number (of)** = 다수의 (=많은)
- **a large number of** = 아주 많은
- **a great number of** = 아주 많은
- **a majority of** = 대부분

a piece of (fruit / paper / wood / metal / advice)
= 한 조각의

an article of (clothing) = 한 점의(의류)

a grain of (sand / salt / rice / sugar) = 한 알의

a bolt (or flash) of (lightning) = 한 줄기의

a game of (tennis / soccer / chess) = 한 게임의

a clap of (thunder) = 한번 딱치는

a type (or kind) of (energy / behavior / courage)
= 일종의

a drop of (rain / coffee / water) = 한 방울의

a bowl of (rice / soup / cereal) = 한 사발의

a loaf of (bread) = 한 덩어리의

a kind of = 일종의

a sort of = 일종의

위 어구들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대충 살펴보고 그 의미들이나 알아두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 어구들이 마치 속어처럼 하나의 단위로 묶여서 움직이며,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 노릇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해두면 됩니다.

10. 가정법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내용을 가정할 때 사용.

If + 주어 + 과거형 동사(were) ..., 주어 + 과거형 조동사(would) + ...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텐데)

가정법에서는 흔히 **If**가 생략됩니다. 그럴 경우 가정법절의 주어, 동사는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도치됩니다. 물론, 그 의미는 **if**가 생략되기 전과 동일합니다.

Were I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만일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텐데)

가정법 과거완료: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

If + 주어 + 과거완료형 동사(had been) ..., 주어 + 과거형 조동사 (would) + have + p.p.(과거분사) ...

If I had wanted to do, I could have done so.

(내가 하고자 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could, can, may, might 등등의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 (**root**)이 와야만 합니다. 따라서 위 가정법 주절의 **have**는 **have** 동사의 원형입니다. 결국 **could have done**은 원래 과거완료형인 **had done**에 조동사가 추가될 때의 과거완료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f 가 생략되면, 언제나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됩니다.

Had I wanted to do, I could have done so.

참고: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1. 가정법 과거완료의 종속절인 **If**절 전체가 생략되고, 주절만 남은 문장이 가끔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그것이 가정법 과거완료의 주절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I could have done so.

(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실제로는 그렇게 안했다.)

위 문장이 가정법 과거완료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과거완료형 부분에 **과거형 조동사 could**로 된 과거완료형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2. 가정법 문장에서는 **If**만 생략된 문장들이 흔히 있음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가정법절의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법 문장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Had I wanted to do, I could have done so.

3. **If**가 없는 문장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법적 의미를 드러내는 문장들이 있음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Supposing an elephant and a mouse fell in love?

(만일 코끼리와 생쥐가 사랑에 빠진다고 가정하면?)

위 문장이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는 문법적 근거는?

suppos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선 “~을 가정하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사 **fall**의 과거형인 **fell**로 사용되었습니다.

Unless he was very ill, he would be at work.

(그가 매우 아프지 않다면, 그는 근무하고 있을 것인데)

위 문장이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는 문법적 근거는?

우선 **unless(=If~ not)**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적 의미이고, 나아가 동사들이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wish I had more money.

(내가 돈이 더 많기를 나는 바란다.)

위 문장이 사실은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는 문법적 근거는?

우선, **wish**라는 단어의 의미가 “~을 바라다”로서 실제 사실이 아니라 단지 희망사항을 의미하고, 나아가 동사 **had** 가 과거형입니다.

I'd suggest that he go home.

(그가 집에 갈 것을 나는 제안하고 싶다.)

위 문장이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는 문법적 근거는?

would suggest(~을 제안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가정법 과거(=현재 사실의 반대내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더구나 **that** 절 부분의 동사가 동사원형인 **go**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위 문장이 보통의 문장이었다면 동사가 **go**가 아니라, 3인칭 단수현재 시제인 **goes**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go** 앞에는 과거형 조동사인 **should** 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d rather you went. (you에 강세가 있을 때)

(내가 아니라, 차라리 너가 갔으면 한다.)

I'd rather you went. (went에 강세가 있을 때)

(너가 여기서 얼쩡거리지 않고, 제발 가 주었으면 좋겠다.)

위 문장은 어느 단어에 강세를 주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아주 달라지는 특이한 문장입니다. 어쨌든, 위 문장은 내용적으로 가정법 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would rather(차라리~ 하고 싶다.)**의 의미가 가정법적이고, 나아가 동사 **went**가 현재형 **go**가 아니라, 과거형 **went**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위 문장은 사실상 가정법 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 약간의 조동사들

언급을 안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문해석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요해 보이는 몇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 위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즉, 조동사들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동사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동사의 여러 종류들 중 아래와 같은 조동사들을 특히 **modal verbs** 라고 하는데, 대개 여러 단어들 이 합쳐져서 마치 하나의 조동사처럼 기능하는데 주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당연한 말이지만 아래 조동사들 뒤에는 언제나 동사원형(= 즉, **to** 없는 부정사)이 와야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be able to = can 할 수 있다

be going to ~ 할 예정이다. ~ 하려고 한다

be supposed to ~하리라고 예상된다

be allowed to ~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be permitted to ~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should ~ 해야만 한다

would(= 생략형 'd) ~ 했으면 하고 바란다. ~ 하고 싶다

may 1)~ 해도 좋다(허가) 2) 아마 ~ 일 것이다(추측)

might ~해도 좋다 (겸손한 표현)

must 1)~ 임에 틀림이 없다(단정) 2) ~해야만 한다(필요)

ought to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 해야 한다

had better ~하는 편이 더 좋다

have to = must ~ 해야만 한다

need to ~ 할 필요가 있다

used to ~하곤 했다(과거의 습관: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습관이 아님)

아래 **shall**은 1인칭에서 사용되고, **will**은 기타 인칭에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shall**은 옛날 영어적 표현으로서 오늘날에는 대부분 **will**만 사용. 그 의미는 둘 모두 “~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임.

그런데 둘 사이에는 구별되는 차이점도 있는데, 그 차이점만 설명하면

shall= ~을 반드시 할 것이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주로 법전에서 사용)

will = ~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습관적 고집), ~을 반드시 하고자 한다(의지)

위와 같은 조동사들이 언제나 반드시 위와 같은 의미들로만 사용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어 문장들에서 위 조동사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그때 그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사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핵심 기초영문법 강의를 마치며

영어원서들을 술술 독파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기초영문법 지식은 모두 제공했다고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고급영문원서들을 독파하는데 필요한 영어단어들에 대한 지식과 고급영문들을 독해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운 영어단어들이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는 영문들에 나올 때마다 외워가면 될 것입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는 데도 사전을 찾아 그 의미를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게으르다면 영어공부를 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제 영문법적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이 책을 통해 배운 영문법적 지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영문을 접할 때 그 지식을 과연 활용할 실력이 있느냐 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간의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경우 이 책에서 가르쳐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잘 적용하는 학생들은 처음에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실제 영문들을 가져다놓고 추가적 실전훈련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위 영문법적 지식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체감적으로 깨닫게 되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해서는 포털 다음에 개설된 카페에 그런 훈련을 위한 숙제문제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어 그런 실전훈련을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편들을 곧 출간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많은 영어 관련 참고 사이트들도 아래 카페에는 소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은 후에라도 반드시 카페에 들러 그런 실전훈련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책만 읽고 영문법이란 생각보다 매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실전훈련과정을 생각한다면 아마 실제 고급영문법적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들에서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모르는 단어들을 일일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추측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소위 말하는 “영문독해의 기술”에 관한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그에 대한 강의도 역시 곧 책으로 출간될 것이고, 나아가 카페에도 소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아래 소개하는 카페에 회원가입해서 추가적 훈련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들의 영문법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babo-edu>